

단절과 고립의 시대, 고전문학에서 찾는 연결과 소통의 길*

- 고소설 작품서사와 여성의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신동훈**

<차례>

1. 코로나 시대에 돌아보는 과거와 현재
2. 기나긴 격리와 고립의 삶과 문학이라는 출구
3. 소설적 상상을 통한 자기 표출과 서사적 확장
4. 존재론적 사유로서 만유의 본원적 연결성
5. 심리적 고립과 서사적 단절이라는 재앙을 넘어서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시대의 두드러진 특성으로서의 단절과 고립, 우울과 분노에 대한 인문학적 대응의 일환으로 고전문학의 속성과 가치에 대해 논했다. 문학치료학의 서사 개념을 적용하는 가운데 고소설의 작품서사와 여성독자의 자기서사를 연결한 논의였다. 작품 안팎의 서사적 접속과 연결, 그리고 연대와 확장에 대해 특별히 주목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당면과제로서 서사적 단절 극복을 위한 유력한 통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의 대다수 사람들, 특히 조선후기 가부장 사회의 여성들은 오늘날과 비할 수 없는 아득하고 엄중한 격리와 고립의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 평생에 걸친 자가격리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서사적 출구를 열어준 것은 문학 문화의 침병 구실을 한 소설이었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숙향전>, <만복사저포기>, <방랑립전>, <삼한습유> 등 주요 고소설 작품들은 당대 여성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현실 너머의 가능세계를 펼쳐 보이며 그것을 내면화하

* 이 논문은 2021년 2월 18일에 열린 한국고전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동명의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자유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을 전해주시신 박일용, 김경섭, 이정원, 김수연 선생님 등 여러 연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도록 했다. 주목할 비는 이들 작품이 펼쳐내는 소설적 상상이 단순한 도피적 공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무덤’과도 같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가운데,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 독자들을 삶의 주체로 일으키는 구실을 했다. 그러한 의미는 작품서사에 내재한 것인 동시에 독자들의 자기서사의 작용에 의해 ‘구성된’ 것이었다. 그 일련의 과정은 미적 자기발견이자 초극적 자기실현을 위한 존재적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소설 작품서사와 여성들의 자기서사의 연결과 접속은 의의가 개인적인 미적 경험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시적 확장성과 통시적 연결성을 발현하는 가운데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 미적 에너지는 성별과 계층을 넘어선 심리적·서사적 연대를 이루어냈으며, 그것은 현실적 저항과 실천으로 이어져 억압과 구속을 깨뜨려 나가는 힘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지난날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던 ‘서사적 길 찾기’의 몸짓에 따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서사적 고립과 단절을 넘어서 본원적 연결과 소통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고전문학을 통해 펼쳐졌던 미적·존재적 투쟁을 새롭게 돌아보면서 현재적으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 고소설, 여성 독자, 작품서사, 자기서사, <구운몽>, <사씨남정기>, <속향전>, 코로나 극복

1. 코로나 시대에 돌아보는 과거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피로감과 고통이 높아져 가고 있다. 행동반경의 축소와 만남의 제한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격리와 단절에 따른 고립감과 무력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절감하는 중이다.

돌아보면 우리가 당연한 일처럼 느꼈던 일상적 자유가 정착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동선(動線)의 자유’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대다수 사람들이 좁은 생활반경 안에 머무는 가운데 주어진 삶을 평생토록 감당해간

것이 불과 100여 년 전까지 지속돼온 세상살이 풍경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오랜 역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성격과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현시점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단절감과 고립감이 정말로 코로나라는 ‘뜻밖의 변수’에 따른 것인지 돌아보게 된. 코로나 이전, 우리는 충분히 연결되고 통했었는가의 문제다. 어떤가 하면, 종족과 계층, 세대와 성별, 신념 등의 차이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우리 삶의 상수였다.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면 자유와 행복이 되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시대의 단절과 고립, 소외와 우울의 뿌리와 맥락을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일이다.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삶의 역사’를 이면적으로 꿰뚫어야 현재를 오롯이 가늠하고 미래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삶의 역사’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생활사와 정신사의 중핵으로서의 문학이다. 일컬어 ‘고전문학’이다.

이 글에서는 고전문학에 대한 하나의 새롭고 거시적인 성찰을 통해 열악한 환경과 수많은 질곡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실현하고자 했던 분투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 관심 대상은 ‘작품’보다는 ‘사람’이다. 독자들이 작품과 소통하고 접속하면서 그것을 내적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이때 작품과 사람의 연결고리로 삼을 기본 개념은 문학치료학의 ‘서사’다. 문학치료학은 작품의 심층에 작품서사가 있고 인간의 이면에 자기서사가 있어서 양자가 긴밀한 미적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거나와,¹⁾ 주요 고전 작품들을 통해 그 상호작용적 의미구현 양상을 짚어

1) 문학치료학을 학문적으로 정초하고 작품서사와 자기서사를 포함한 서사의 개념과 양상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연구자는 정운채다. 일련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그의 서사이론 체계는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에 핵심적으로 집약돼 있다. 정운채가 말하는 서사의 개념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면적 심층에서 작품 또는 인생의 속성과 양태를 좌우하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다.

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출 논의대상은 작품서사 쪽에서는 고소설이고, 자기서사 쪽에서는 여성이다. 소설은 근대 이전 수백 년간 문화의 첨단이자 주류였고, 그 중심에는 여성이 있었다. 소설이 펼쳐내는 자유롭고 광대한 상상세계와 집이라는 좁은 반경 내에 머물러야 했던 여성들의 미적 만남이 빚어내는 파토스가 본 논의의 기본 관심사가 된다. 그로부터 고립과 단절, 소외에 맞선 서사적 투쟁과 자기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도는 고소설의 서사와 여성 서사의 특수한 국면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 그를 통하여 문학과 인간의 상호작용적 의미실현 과정에 대한 보편적 이해로 나아가려는 것이, 나아가 오늘날의 우리가 펼쳐나갈 ‘문학적 삶’의 길을 찾아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문학이며 그 원형을 고전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단절과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연결과 소통 속에서 더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분투다.

2. 기나긴 격리와 고립의 삶과 문학이라는 출구

1) 평생을 이어가야 하는 자기격리의 삶

문학은 상상의 산물이지만, 한편으로 삶의 정확한 반영이자 과정이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처한 물리적·심리적 환경이 높은 밀도로 응축돼 있다.

소설을 비롯한 고전문학 작품들이 산출되고 세간에 유행하던 시절에 있어 사람들의 행동반경은 오늘날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그 제한은 생계의 터전이나 교통수단 같은 물리적 측면 외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강하게 작용했다. 신분과 계급, 직업 등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반

경과 동선은 큰 제약을 받았다. 소속된 본거지와 역할에서 벗어나 임의로 움직일 자유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다.

전통사회에 있어 생활반경과 동선의 제한은 여성에게 더 엄격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성은 집과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힌 존재였다. 여성에 대한 통제는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은 조선왕조에서 대폭 강화되었으니, 부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놀이를 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²⁾ 조선전기에 상당한 틈새가 있었고 17세기에만 해도 친정행 등에 융통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동선³⁾은 17세기 중후반을 거쳐 18세기에 접어들어 전면적 통제 수준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 집이라는 울타리, 그것도 안채라는 한정된 공간에 내내 머물러야 하는 것이 여성의 삶이었다.⁵⁾

넓어봤자 몇십 평 수준의 공간 안에 뽕뽕 갇힌 조선조 규방 여성의 삶, 그것은 일종의 감옥살이와 가튼 것이었다. 하루이틀도, 한두 해도 아니고 평생에 걸쳐 머물러야 하는 감옥이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엄격한 자기격리를 평생에 걸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부와의 소통수단이 제한돼 있으니 더 답답하고 아득한 감옥이다. 세상은 넓되 내 있을 곳은 불과 몇 발자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물론 이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다.

-
- 2) 정지영, 「규방 여성의 외출과 놀이: 규제와 위반, 그 틈새」, 국제문화재단 편, 『한국의 규방문화』, 박이정, 2005, 130쪽.
 - 3) 조혜란, 「17세기 조선의 규방 현실에 대한 보고」,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357~365쪽.
 - 4) 강명관, 「조선 사족체제의 성립과 여성의 통제」, 『여성학연구』 20(3), 부산대 여성연구소, 2006, 122쪽.
 - 5) 양반가 가옥구조를 연구한 김영선은 여성의 생활공간이 격리와 감시 통제가 용이한 형태로 배치돼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김영선,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공간 구조를 통해 본 여성통제에 관한 연구: 영남 양동마을 향단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54~57쪽, 83~87쪽.

그 삶에 어떤 식으로든 적응한 여성들도 있겠거니와, 움직일 수 있는 몸과 날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갇힌 삶에서 겪는 고립감과 우울감이 어떠했을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 이면적 실상은 문학 작품 속에 생생하게 반영돼 있으니, 규방가사에서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열두 때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하다 / 玉窓의 심근 梅花 몇번이나 피여 디고
 겨울밤 츠고 춘제 자취는 섯거 티니 / 녀름날 길고 길제 구즌 비는 무슴 일고
 三春花柳 好時節의 景物이 시름일다 / ㄹ을돌 房의 들고 蟋蟀이 床의 울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결업시 험만 만타 / 아마도 모딘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규원가⁶⁾

열두 때 설흔 날 사시사철 긴 시간을 좁은 울타리 안에서 한숨과 눈물로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성의 심리적 정경 내지 내면서사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형상이다. 규방 여성으로서 이 작품의 서사에 공명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주어진 선택이란 어떻게든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내적 불화를 이어가는 것. 어느 쪽이든 슬픈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전통사회 여성의 삶이 ‘빈틈없이 엄격한 자가격리’였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그들은 규제의 틈새를 비집고서 임금이나 사신 행차를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절에 찾아가거나 경치를 완상하기 위해 야외로 나가기도 했다.⁷⁾ 하지만 이는 공식적 승인을 얻은 나들이가 아니었고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규중 여성이 공식적 승인하게 단체로 야외에 나가서 회포를 풀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기회는 화전놀이였다.⁸⁾ 그 하루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벅찬 날이었는지는 수많은 ‘화전가’ 가사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봄이 오기 전부터 시작되는 들뜬 기대와 준비, 그 하루의

6) 이상보 편저, 『한국가사선집』, 집문당, 1979, 245쪽.

7) 조혜란, 앞의 논문, 58쪽.

8) 위의 논문, 58~59쪽.

자유와 행복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모든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 하루를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그 여운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까지, 그 일련의 정경⁹⁾은 역설적으로 ‘간혀 있는 일상의 고적함’을 강력히 환기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먹먹함을 전해준다. 대다수 화전가가 ‘명년의 이 날’에 대한 기약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꿈결처럼 지나간 하루와 거기 이어질 삼백예순 지리한 고립의 날들…….

바깥구경이나 화전놀이 같은 기회는 여성의 삶에 주어진 숨구멍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작은 숨구멍일 따름이었다. 그 예외적 일탈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되새기는 것으로써 지나간 격리의 삶이 오롯이 보상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교묘한 문화적 통제였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그들에게 그 외에 무엇이 더 있었나 하면 바로 문학이 있었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상상적 해방구로서의 문학. 특히 소설은 조선후기 여성에 있어 크고도 중요한 미적 탈출구였다.

2) 미적 · 존재적 투쟁으로서 글쓰기와 소설 읽기

사람이 좁은 테두리 안에 쫄쫄 갇힌 채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상상력 때문이다. 상상은 내 몸을 가둔 감옥의 담장을 훌쩍 벗어나 어디로든 훨훨 날아간다. 하지만 방향과 형상이 없는 상상은 길을 잃기 십상이다. 사람들을 울타리 밖 새로운 세계로 오롯이 인도해서 의미로운 경험을 부여하는 것은, 그를 통해 내면의 서사를 발견하고 확장하게 하는 것은 상상력이 미적 형상과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미적 상상의 언어

9) 화전가류 가사의 양상과 특징에 대한 논의는 예컨대 다음 논문들에 자세히 나와 있다. 김동규, 「화전가에 나타난 화전놀이의 유형과 기능」, 『도남학보』 17, 도남학회, 1998; 권순희, 「화전가류 가사의 창작 및 소통 맥락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53, 민족어문학회, 2006;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박경주, 「화전가와 여성기행가사의 놀이와 여행 체험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로서 문학의 본래적 구실이다.

그러한 ‘문학 하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규방 여성에 초점을 맞추면, 구비문학이 주종이었던 민간에서와 달리 글쓰기와 책읽기가 문학 행위의 주요 축을 이루었다. 세상이 이들에게 내민 것은 계녀서(戒女書)나 내훈(內訓) 류의 글이었지만, 이들이 더 강력히 욕망하고 추구한 것은 문학 적 쓰기와 읽기였다. 앞서 〈규원가〉와 〈화전가〉를 언급했거니와, 그들의 현실적 일상은 이렇게 문학적 언어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미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글쓰기는 자기 위안이자 존재 실현의 절절한 몸짓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현실을 반영한 사실적·경험적 쓰기와 읽기로는 충분치 않았다. 주어진 한계를 넘어선 미적 표출과 상상적 확장이야말로 갇힌 삶 속에서 펼쳐진 문학행위의 핵심 요소였다. 특별한 문재(文才)를 갖춘 경우 그것은 시 창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으나,¹⁰⁾ 더 보편적이고 넓은 길은 소설(小說)의 향유였다. 15,6세기를 거쳐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안착한 애정전기소설은,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 세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일군의 장편소설은 울타리에 갇혀 있던 여성들에게 일종의 구원과도 같은 것이었다. 허구적 상상으로나마 담장을 훌쩍 벗어나 다른 시공간의 낯선 삶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다. 더구나 그것이 구체적이고 섬세한 미적 형상에 입각한 강력한 흡인력과 감발력을 갖춘 것임에랴.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소설의 시대’가 펼쳐진 것은, 그리고 그 문화를 여성들이 주도해간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다.¹¹⁾

10) 유선시(遊仙詩)를 비롯한 허난설현의 광범위한 상상적·환상적 시작(詩作) 행위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11) 조선후기에 불어닥쳤던 여성들의 소설 독서 열풍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 예로 18세기 체제공과 이덕무 등의 언급에 의하면 당시 부녀자들이 소설책을 빌려 보느라고 가사를 돌보지 않고 비녀와 팔찌 등을 내다 팔며 가산을 탕진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이덕무는 여성들의 소설 읽기를 ‘탐독(耽讀)’

소설에는 현실에 간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적 욕망이 다양한 형태로 녹아들어 있다. 단순하고 평면적인 반영이 아닌, 자유롭고 전복적인 상상력을 통한 전환적이고 확장적인 반영이다. 대다수 작품은 남성들이 지은 것이지만, 그 속에 더 큰 무게감으로 살아 숨쉬는 것은 여성들의 욕망과 서사다. 소설 특유의 무의식적이고 전면적인 반영력이 작동한 결과다. 여성들의 지위진 존재성과 억눌린 소망이 상상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작품에 다층적으로 침투한 형국이다.

여성들의 소설 읽기는 작품 텍스트에 드러나 있지 않은 숨은 의미와 맥락을 제 식으로 찾아내고 구성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고 봄이 합당하다. 남성 작가들이 남성적 관점에서 쓴 작품이라 하더라도, 여성 독자들은 그것을 주체적으로 자기식으로 상상하고 재구성해서 의미화했다는 뜻이다. 일컬어 작품서사를 통한 자기서사의 발현이자 재구성이다. 주체적 상상과 재구성을 통한 콘텍스트적 재의미화는 문학의 본질적인 존재방식이자 존재 의미이기도 하다.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이 소설을 읽으며 스스로를 발견하고 발현해온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존재적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무게감이 고스란히 실려 있는 미적 투쟁이다. 고전문학에 대한 정당한 이해는 그 실존적 무게감을 오롯이 인지하고 감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3. 소설적 상상을 통한 자기 표출과 서사적 확장

1) 어머니를 위해 지어진 소설, 〈구운몽〉

한국 소설사의 최고 명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구운몽〉은 김만중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39~40쪽 참조.

(1637~1692)이 평안도 선천으로 유배될 당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노년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전언의 진실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되, 이 작품이 규중의 여성 독자들에게 널리 읽힌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잘 알듯이 <구운몽>은 성진의 환생인 양소유가 팔선녀가 환생한 여덟 남자와 차례로 인연을 이루어 2처 6첩과 더불어 인생사 부귀영화를 한껏 누리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묘한 아이러니는 일부다처의 가부장적 구도가 두드러진 이 작품을 어머니라는 여성을 위해 지었다고 하는 점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억울할 만한 차별적 설정¹²⁾에 대해 어머니 독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문제다.

30여년 전, 고전문학회 연구발표회의 한 장면이 기억에 생생하다. <구운몽> 발표에 대한 자유토론 자리에서 이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었다. 누구도 선뜻 그럴싸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중견교수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그게 말이지요,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쓴 작품이잖아요? 남편의 여성 편력은 여자가 아주 싫어하지만, 아들이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건 뿌듯하게 여기거든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웃음이 터져나왔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답이라고 찬탄했다.

가부장적으로 보이는 작품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풀이다. 현대적 편견이 반영된 관점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대 여성을 ‘두번 죽이는’ 논리라 할 만하다. 남편 없이 고군분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최고의 인재로 교육해낸 정경부인 해평윤씨가 이런 수준의 여성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식이 그런 식의 허튼 몽상으로 어머니를 위로하

12) 이는 여러 연구자들의 시각이기도 했다. 한 예로 송성욱은 <구운몽>을 포함한 17세기 장편소설에 질게 투영된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욕망과 시각이며 여성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소설적 재미 때문에 작품들을 가까이한 것으로 본 바 있다.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 <사씨남정기> · <구운몽> · <창선감의록> ·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259~261쪽.

려 했을 가능성도. 학술대회의 그 장면은 현대 남성의 서사가 투사된 옷지 못할 에피소드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예의 〈구운몽〉 서사는 고단한 평생의 분투 끝에 자식을 유배지로 보낸 어머니에게, 또는 그와 비슷하게 규방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고독과 우울을 겪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 유교적 체제에 충실한 가모(家母)의 입장에서, 가문의 질서 속에 처첩이 갈등이나 불화 없이 조화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이상적 형상¹³⁾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남녀 인물들이 제각각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화함으로써 치유되는 과정이 어머니의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게 되는 것¹⁴⁾일까? 또는, 〈구운몽〉의 전통적 독법과 관련하여, 인생무상의 깨달음과 허무의 초극이라는 철학적 주제의식¹⁵⁾이 어머니의 서사와 접속되는 것일까? 아니면 최근 신재홍의 주창처럼 작품 속 어머니들-양소유의 모친과 정경패 모친 등-의 형상과 역할이 어머니 독자와의 서사적 접속 통로가 되는 것¹⁶⁾일까?

작품의 전체적 구도 및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볼 때 ‘삶의 무상함 극복’이라는 지점을 주목하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하지만 양소유를 매개로 여덟 낭자가 펼쳐나가는 길고도 생생한 우여곡절의 역정은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단지 철학적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더없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작품적 실체다. 여성 독자들은 그 소설적 과정 속에 자기를 투사하는 가운데 밀도 높은 상상적 체험을 펼쳐나갔다고

13) 정출현, 「구운몽의 작품세계와 그 이념적 기반」,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141~149쪽.

14) 정병설, 「주제 파악의 방법과 구운몽의 주제」,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332~333쪽.

15)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많은데 그 한 도달점으로 이강욱, 「구운몽의 재해석과 희망의 서사교육」,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을 들 수 있다.

16) 신재홍, 「어머니 독자와 김만중의 소설 창작」, 『고전문학과교육』 4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35~139쪽.

보는 것이 옳다.

주목할 것은 여덟 여성이 양소유의 부속물이 아니라 욕망하고 행동하는 실체적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제각각의 캐릭터와 목소리를 지니는 가운데 제 욕망의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며 제각각의 서사를 실현해 나간다.¹⁷⁾ 여성 독자들이 자연적으로 이끌리고 공명하는 가운데 자기식으로 내면화하고 의미화하게 되는 작품서사적 요소다. 그럼에도 그 형상이란 결국 다수의 여자가 한 남자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차별적이고 종속적인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표면적 형상일 따름이라고 말하겠다. 이면적 서사로서 의미화되는 여성 독자들의 욕망과 자기실현은 이와 다른 각도에서 읽어 낼 수 있다.

앞서 여성의 삶이 ‘평생의 자가격리’에 준하는 것임을 말했거니와, 그런 여성들에게 가장 아쉽고 필요한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남편이나 자식일 수도 있고 친정식구일 수도 있겠으나, 그 이상으로 간절한 것은 일상을 함께 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벗’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모든 것을 숨김 없이 이야기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 말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구운몽〉 여덟 남자의 상호관계는 친구의 서사로 볼 수 있다. 오롯한 지지지우적 동반의 서사다. 마음이 제대로 통하는 좋은 벗들을 거둬 만나는 가운데 존재성을 확장해가는 자기실현의 역정이다. 구운몽의 여덟 남자는 예외 없이 서로 의기가 들어맞는 동반자들이거니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단짝’들이 있기도 하다. 계섬월은 자기와 꼭 닮은 오랜 친구 적경홍과 행로를 함께 하며, 정경패는 오랜 벗으로 지내 온 시비 가춘운을 짝으로 삼아서 양부(楊府)로 들어간다.¹⁸⁾ 변방의 여인인

17)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일용, 「인물형상을 통해 본 〈구운몽〉의 사회적 성격과 소설사적 위상」, 『한국학』 14(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195~204쪽에 잘 제시되어 있다.

18) 계섬월과 적경홍, 정경패와 가춘운이 지음(知音)으로서 함께 움직이는 양상은 정길수가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들베개, 2000, 61~77쪽. 한

심요연과 백능과는 유사한 경로로 양부에 합류하면서 단짝이 된다. 난양공주 이소화가 양소유와 결혼한 것은 주체적 탐색 과정을 통해 지기(知己)의 관계를 이룬 정경파와 함께였다. 진채봉이 좀 외로운 편이지만 그녀 또한 궁궐에서 이소화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이였다. 요컨대, <구운몽>의 여덟 여인은 가까이 단짝과 어울리고 크게는 다 함께 어울리면서 제반의 일상을 함께해 나간다. 이렇게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그들의 삶의 공간은 더 이상 좁은 감옥이 아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확인하고 행복을 구가하는 충만한 우주에 가깝다. 과장해서 말하면, 양소유는 없어도 그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다시 김만중의 어머니 윤씨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가 아니었을까? 좋은 벗들과 더불어 마음껏 웃고 떠들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간절한 꿈이었음을 김만중은 성장 과정에서 실감한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개성 넘치는 수많은 벗들과 함께 하는 찬란한 인생서사를 어머니께 선물하여 그 고단한 분투의 삶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어머니에게 부재했던 무엇, 한 명의 멋진 사내까지 덤으로 끼워서 말이다.

어쩌면 그것은 김만중이 의식적으로 설정한 구도가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나긴 격리의 삶 속의 여성들 입장에서 그와 같은 자기서사적 공명과 체현이 가능한 형태로 작품서사가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여성 독자들이 작품 속의 여성 인물에 자기를 투사하는 가운데 관계의 역정을 의미화 하는 것은 당연하거나, 작품에서 그 중핵을 이루는 여성들의 지기(知己)적 관계맺기 서사를 무심히 지나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강력한 교감과

편, 김정애도 계섬월과 적경홍의 동행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짚어낸 바 있다. 김정애, 「구운몽에 나타난 계섬월의 연애방식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통일인문학논총』 53,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3, 125~136쪽. 이 연구에서 김정애가 주목한 것은 독점과 경쟁을 넘어선 포용의 관계를 통한 삶의 서사적 확장 가능성이었다.

접속을 이루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그 형상은 실제 현실이 아닌 소설적 허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현실과 상상의 미적 간극 때문에 오히려 더 절박하고 강렬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서사적 발현은 허튼 판타지가 아니라 실존적 투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고립 속의 여성들이 '나의 살아있음'을 그렇게 발현한다는 뜻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본다. 윤씨를 비롯한 규중 여성이 <구운몽>을 읽을 때 여러 여성 인물들 가운데 특히 누구와 서사적 접속이 이루어질까? 그에 대한 1차적 답으로 떠오르는 것은 정경패다. 한편으로 가춘운과 연결돼 있고 한편으로 이소화와 접속되는 가운데 양소유와의 치고받음을 가장 멋지게 펼쳐내는 인물이 정경패다. 여장을 하고서 자기를 떠보았던 양소유를 정경패가 시비 가춘운과 공모하여 완벽하게 농락하는 과정은 되로 받고 말로 주는 양값음으로서 남녀 주객관계가 전복된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일련의 서사에서 여성 독자들이 경험했을 대리충족적 쾌감이 어떠했을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¹⁹⁾ '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다면!'²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딱히 정경패만이 아니다. 독자들은 서로 캐릭터와 서사가 완연히 다른 여덟 여성 모두에 대하여 서사적 공명과 투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진채봉이 되어서 꿈에 부풀다 절망하고, 정경패가 되어서 양소유 앞에 얼굴이 붉어지고, 가춘운이 돼서 버려짐의 불안에 젖어두고 하는 식이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계섬월와 적경홍, 심요연, 백능과까지 모든 여성 인물의 서사와 내면풍경을 내면화하게 된다.²¹⁾

19) 작품 내에서 그 일련의 장면이 정경패와 가춘운 외에 여러 여성인물들이 함께 상황을 한껏 즐기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20) 정길수는 <구운몽>의 여성 가운데 정경패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말하면서 그 이유는 정경패가 사대부가의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정길수, 앞의 책, 81~82쪽), 신분보다는 캐릭터와 서사적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21) 물론 그 서사적 공명과 접속의 구체적 양상은 독자에 따라 같지 않을 것이다. 처지나

자기서사의 전방위적 확장이자 증충화다. 그런 식으로 여성 독자들은 자기 격리의 고립과 우울을 미적으로 치유하고 초극해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들을 귀양지로 떠나보낸 말년의 노부인은 작품에 펼쳐진 여덟 여인의 서사에 대해 그것을 아들이 그려내고 헤아린 것보다 열 배, 백 배에 해당하는 무게감으로 체현하면서 웃음과 눈물로 밤을 새우다가 그윽히 밤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덧붙이자면, <구운몽>의 여성 인물들이 펼쳐내 보이는 ‘지기(知己)의 연대(連帶)’는 19세기의 명작 고전 <옥루몽>에서 더 섬세하고 역동적이며 장대한 형태로 펼쳐진다. 강남홍과 벽성선, 일지련 세 인물이 펼쳐내는 관계적 서사는 인간의 서사적 접속과 연대의 한 구극(究極)을 보여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²²⁾ 작품 후미에서 작가는 세 여인이 삶의 본거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펼쳐낸 이상적 일상생활 풍경이 한데 어우러지는 양상을 더없이 길고 자세하게 펼쳐내고 있거니와, 오늘날 독자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그 장면은 당대 여성 독자로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는 가운데 자기화를 이루어가는 고밀도의 미적 체험의 장이었다고 보아 틀림없다.

2) 대륙에 홀로 던져진 주인공을 따라서

이제 눈길을 같은 작가의 작품이면서도 색깔이 다른 것으로 여겨져온

성격, 사건 면에서 자기 자신과 연결성이 있는 인물에게 더 깊은 공감과 투자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테면, 사회적·심리적으로 큰 몰락을 경험해본 독자는 진채봉에게 더 깊은 서사적 공명을 이루고, 외부자적 정체성을 지니는 독자라면 심요연이나 백능파에 공명하여 접속하는 식이다. 작품서사에 대한 자기서사의 감응에서 ‘개별성’은 보편성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해 둔다.

22) <옥루몽> 속에서 남녀 주인공 사이에, 그리고 여성 인물들 사이에 구현되는 ‘지기의 관계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동훈, 「<옥루몽>과 정명(正名)의 철학, 그리고 치유」,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016, 402~408쪽 참조.

〈사씨남정기〉로 돌려본다. 자유롭고 분방한 상상의 발현을 특징으로 하는 〈구운몽〉과 달리 보수적 구속 내지 안주의 측면이 강해 보이는 이 작품에 투사되는 여성의 욕망과 서사적 자기 발현의 실체가 무엇인가의 문제다. 남정(南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상호작용적 의미화 양상을 짚어볼 것이다.

〈사씨남정기〉는 주인공 사씨(사정옥)의 남행(南行)에 얽힌 서사가 중요한 소설적 축을 이룬다. 중국 남부를 펼쳐지는 과란만장의 여정을 작가는 ‘남정(南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말 그대로 풀면 남쪽으로의 ‘원정(遠征)’ 내지 ‘정벌(征伐)’이다. ‘대장정(大長征)’이라고 해도 좋을 무엇이다.

잘 알듯이 사씨의 남행은 흉녀 교씨(교채란)의 모해에 의한 쫓겨남이었고, 구명(救命)을 위한 절박한 고난의 역정이었다. 간인 동청과 결탁한 교씨는 자식살해 누명을 씌워서 사씨를 집에서 내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가 선영을 지키고 있는 사씨를 습격해서 살해하려고 한다. 급박한 위기 상황을 겨우 모면한 사씨는 노복 몇만 대동한 채 장삿배를 얻어타고 먼 여행을 나서게 된다. 그 여정은 잠깐 순탄한 듯했으나, 머지않아 시련과 고난이 앞길을 막는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 길을 지체하며, 목적지로 삼았던 장사(長沙)는 가봤자 소용없는 곳이 된다. 의탁할 곳을 잃은 채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씨의 선택은 강물에 몸을 던지는 일이었다.

지필을 가져오라 하여 애원(哀怨)한 정회를 자세히 기록한 후 붓을 가져 땅에 던지며 왈, “유유 창천은 어찌 나로 하여금 이에 이르게 하느냐. 옛말에 이른 바 하늘이 어진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사나운 사람에게 화를 내린다 하더니 실로 허언(虛言)이로다.” 또 가로되, “비간은 오장(五臟)을 깨치고 굴원은 떡라에 잠기고 자서는 오강에 바리이고 가의는 북조부(鵬鳥賦)를 지으니, 예부터 이러 한지라. 내 죽음이 마땅하도다.” 하고 북향하여 빌어 가로되, “부도 신령은 소녀가 오늘날 이 물에 빠짐을 아소서. 소녀의 혼백을 부르사 한가지로 지하에 가 모시게 하소서.”²³⁾

유서를 쓴 뒤 강물 앞에서 한탄하는 장면이다. 선악이 뒤집히고 천도가 무심하여 궁지에 내몰린 상황. 더없이 억울하고 비통한 모습이다. 이러한 장면과 만날 때 독자들은, 특히 여성 독자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상황 정말 싫어. 보고 싶지 않아!” 하면서 책을 덮기라도 했을까? 주인공이 돌아가 흥인에게 복수하는 장면을 빨리 보고 싶어서 내용을 건너 뛰기라도 했을까?

오늘날의 독자라면 그럴지 몰라도, 조선조 여성 독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으리라는 것이 나의 확신적 판단이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주인공과 더불어 집이라는 좁은 감옥을 벗어나 광활한 바깥세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중이다. 그 넓다는 중국 대륙을 훌쩍 가로질러서. 사씨가 단신에 가까운 몸으로 배에 올라타는 시점은 독자들이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대목이 아니다. 드디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모름지기 그들은 사씨가 탄 배가 흘러감을 시작할 때 흥분 속에서 마음으로 외쳤을 것이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무엇의 시작인가 하면 ‘원정(遠征)’의 시작.

주인공의 여정이 곧바로 목적지로 이어져 안착되는 대신 뜻밖의 우여곡절을 겪는 것은 그리하여 당연한 일이 된다. 풍파를 만나 길이 막힌 끝에 사씨가 흘러가 당도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초나라 땅이었다. 아황 여영 이비(二妃)의 눈물이 댄 소상반죽이 숲을 이루고 굴원과 가의의 슬픈 역사가 깃든 전설의 땅. 작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동정(洞庭) 어귀를 말미암아 악양루 하에 이르니, 이 땅은 전국(戰國)시 초나라 순임금이 남순(南巡)하사 창오산에 붕(崩)하시니 두 아내 아황과 여영이 소상강에 가 눈물이 진(盡)하고 피 흘러 뗏가지에 뿌리니 드디어 반죽(斑竹)이 되니라. 그 후에 초나라 어진 선비 굴원이 충성을 다하여 임군을 돕다가 마침내

23) 장서각본 〈사씨남정기〉. 김만중 지음,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342~343쪽. 인용문은 원전을 본 연구자가 현대어로 비꾼 것이다. 이하 〈사씨남정기〉 인용은 다 그러하다.

소인의 참소를 입어 강남에 내쳐 이소경(離騷經)을 지어 스스로 원망하다가 물에 빠지고, 한나라 가의는 낙양 재자로 대신에게 무(誣)이여 장사에 내치니 글 지어 굴원에게 조문하니, 이 수삼 인의 적(跡)이 오히려 있더라. 구와산의 근심된 구름과 소상강 밤비와 동정호 붉은 달과 황릉묘 두견의 소리 비록 수심 없는 사람이라도 눈물 아니 흘릴 이 없거늘, 하물며 사부인은 몸을 닦고 행실을 삼가며 마음을 다하여 사람을 섬기다가 참소에 곤(困)하여 일신이 표박하여 이 땅에 이르니 옛일을 생각하고 이제를 탄식하매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²⁴⁾

동정호와 악양루에서 구와산과 황릉묘까지 지명을 툭툭 던져놓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일으키는 미적 연상은 얼마나 큰 것인지! 규방 안의 독자들은 필시 이 지점에서 마음의 걸음을 멈추고서 저들 고인(古人)들의 자취를 이리저리 되새겨보면서, 기본 적 당연히 없고 앞으로도 가볼 가능성이 전무한 전설적 장소들을 이렇게 배치해 보고 저렇게 그려보면서 가없는 감회에 젖어들었을 것이다. 스스로 두견새 소리를 내보면서 아황 여영이 되어보고 또 굴원과 가의가 되보면서 “밤이 새도록 경경(耿耿)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²⁵⁾였을지도 모른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갈곳을 잃은 사씨가 강물에 뛰어들려 한 장소가 바로 굴원이 바위를 안고 물로 뛰어들었다는 그곳 회사정(懷沙亭)이었음은 우연이 아니다. 사씨는 그렇게 시간을 뛰어넘어 굴원이 되고 있는 중이고, 독자들은 시공간을 함께 뛰어넘어서 사씨 겸 굴원이 되고 있는 중이다. 조선땅 좁은 규방 속에서 펼쳐지는 그 극적인 서사적 확장의 체험을 일컬어 자기서사적 분투라고 하고 존재적 자기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과장일까.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굴원은 거기서 죽었지만 사씨는 죽지 않고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이미 몽사(夢事)를 통해 8년 뒤의 귀환이 예고되어 있

24) 위의 책, 338~339쪽.

25) 위의 책, 339쪽.

는 터다. 지금 독자들의 관심사는 돌아옴에 있지 않다. 8년에 걸친 원정의 날들을 얼마나 특별하고 벅차게, 극적으로 펼쳐내는가 하는 데 있다. 비교하자면 화전놀이의 하루가 8년 내내 이어지는 형국이다. 모름지기 그들은 텍스트에 씌어있는 것보다 열 배 백 배의 상상과 감격으로 그 벅찬 모험의 형상을 마음에 채워 나갔을 것이다.

그 절정이 어디인가 하면 사씨가 유연수를 구하는 장면이다. 생사의 갈림길을 헤쳐가면서 바깥세상의 인연을 확장해가고 있던 사씨는 어느 날 유모와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남편 유연수를 유유히 구해낸다. 흥인에게 속절없이 속아넘어가 자신을 무참히 내친 남편을 구해내고서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하는 표정으로 태연한 시선을 던지는 여인. 그 장면에서 여성 독자들이 경험한 카타르시스가 얼마일지 가히 측량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두 남녀의 서사적 역학관계는 완전한 역전을 이룬다. 그 이후는 말 그대로 사씨의 독무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뒷날 집으로 돌아온 유연수가 교씨의 가슴을 가르고 염통을 꺼내라고 명할 때 사씨가 척 나서면서 “비록 죽이나 몸을 완전히 하여 죽이소서.”²⁶⁾ 하고 관용(?)을 베푸는 장면은 그 완벽한 대단원이 된다.

하지만 결국 가부장 규중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돌아왔으니,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우회였으니 무의미한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정 자체가 곧 인생이라고 답하겠다. 이는 작품 속의 사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와 함께 상상적 여행을 함께 했던 독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라고 할 바가 아니다. 그 미적 여정에서 드러내고 풀어낸 것이 있고 새롭게 마음에 새긴 것이 있으니 그들의 서사는 그만큼 변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마음의 거침을 견어내고 내적인 힘을 얻은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조금은 더 가볍게,

26) 위의 책, 426쪽.

또는 힘차게 펼쳐낼 수 있었을 것이다. 긴 여정을 거쳐 자기 있을 곳으로 돌아온 사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른바 서사 변화를 통한 존재의 치유이고 확장이다. 이를 두고 ‘부도(婦道) 준수의 계몽적 교훈’이라고 규정한다면 상상력 부족일 것이다.

교씨의 서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 여러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작품 속 교씨의 형상은 현실적 생동력이 넘친다.²⁷⁾ 그가 펼쳐내는 욕망의 동선은 맹랑하고 불온하면서도 강렬하다. 규중의 독자들이 그것을 자기와 딱 가른 채로 반대편에서 응시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역시 상상력 부족이다. 의식 무의식중에 그 욕망의 동선을 따라가는 상상적 체험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더 큰 설득력을 지닌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상적인 욕망 노출 체험이 억눌렀던 욕망의 표출과 해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욕망의 화신이 되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은폐된 욕망을 인지하고 통제하며 승화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작품은 그러한 미적 초극의 과정이 오롯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고 서술되어 있다. 작품 말미에서 사씨가 임씨를 남편의 새 소실로 들이는 것은 그러한 미적 통제가 이루어진 상황의 서사적 표현이라고 할 만하다. 이 작품이 갖는 교화적 의미가 있다면 이런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작품이 전해주는 미적 체험과 교화적 의미는 그 맥락이 단순치 않다. 오묘하고도 강력하다.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준비했던 또 다른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덜어낸다. 그 작품은 〈최척전〉과 〈숙향전〉이다. 주인공 여성이 밟아가는 원정(遠征)의 동선이 〈사씨남정기〉 이상으로 넓고 크며 강렬한 작품들이다. 작품 초입으로부터 말미까지

27) 예컨대 김현양은 이 작품에 대해 ‘사씨의 남정기’는 ‘교씨의 욕망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교채란의 욕망이 생생하고도 강렬한 리얼리티를 지님을 강조한 언급이었다. 김현양, 「사씨남정기와 욕망의 문제 - 소설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97~102쪽 참조.

거의 전 과정이 놀랍고 극적인 유동(流動)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작품들에서 주인공이 던져진 공간 또한 미지의 드넓은 대륙이다. 옥영 같은 경우 거친 대양(大洋)까지가 유동의 무대이며, 속향의 행동반경은 천상 선계까지 포괄한다. 그들의 동선은 한편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한편으로 매우 역동적이다. 이들 주인공의 서사가 독자에게 전해주는 미적 체험의 밀도와 서사적 자기 확장의 폭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구 구체적 양상이 어떠한 것인지는 논문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속한 곳을 넘어서 드넓은 미지의 세상을 움직인다. 현실과 달리 여성들까지도 가장 보수적인 유형의 소설, 예컨대 대하가문소설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 속의 '갇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과 단절을 넘어 연결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미적 통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여 왔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강력하게. 온 존재를 신고서.

3) 지워진 욕망의 노출과 접속, 그리고 연대

소설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를 통해 현실의 한계를 초극하는 미적 체험을 전해주는 특별한 상상의 세계다. 그러한 상상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지만, 현실과의 매개성을 상실할 경우 공상적 대리만족을 통한 현실 회피로 흐를 수 있다. 방금 살펴본 <구운몽>이나 <사씨남정기> 같은 경우도, 독자들에게 따라서는 단절적이고 도피적인 자기서사 발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대하여 고소설이 치열한 현실적 자기인식과 존재적 직면이라는 지향성을 초기부터 무겁게 구현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치원>과 <금오신화>로부터 16세기 임제의 소설과 <기재기이>를 거쳐 <운영전>과 <주생전> 류 애정전기소설로 이어지는 흐름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이른 시기 한국소설사를 수놓는 한편으로 조선후기를 관통하며 향유되어 왔다.

오랜 시기에 걸쳐 소설문화의 중요한 실체였다는 뜻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애정’이 하나의 중심적 화두를 이루거니와, 그것이 작품외적 현실과 어떠한 의미적 역학관계를 지니는지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녀간 애정을 다룬 초기 전기소설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모티프로 ‘명혼(冥婚)’을 들 수 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남녀결합이라는 요소가 <최치원>과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 등 여러 작품에서 거듭 반복되며 변주된다. 이때 죽은 사람 쪽은 거의 어김없이 여성이다. 죽음을 겪고서 무덤에 든 여인이 홀연히 나타나 손을 내뻐으로써 특별하고 경이로운 인연이 성립되는 것이 상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죽음’ 또는 ‘무덤’의 문학적 함의다. 문면 그대로 말하자면 작품 속 여성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죽은 존재이고 귀신이겠지만 과연 그들을 정말로 ‘숨이 끊어져 죽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텍스트를 넘어선 콘텍스트적 의미 발현 과정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 작품서사는 현실적 은유 내지 상징의 차원에서 독자들의 자기서사와 공명하고 접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그 죽음은, 또는 무덤은 실제의 ‘사망’이나 ‘묘소’가 아니라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소설적 은유라고 볼 수 있다. 일컬어 욕망의 소거(消去)이며, 존재의 죽음이다. 존재하고 있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저의 나이 18세, 아우의 나이 16세가 되자 부모님은 혼처를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장사와 정혼하고 아우는 차(茶)장사에게 혼인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매번 남편감을 바꿔달라고 하고 마음에 차지 않았다가 울적한 마음이 뻗혀 풀기 어렵게 되고 급기야 요절하게 되었습니다.²⁸⁾

28) <최치원>. 김현양 외 공역, 『수이전 일문』, 박이정, 1996, 46~47쪽.

드디어 함께 개령동이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쭉대가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덤불이 하늘을 찌를 듯 무성하였다. 그 가운데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작지만 매우 정갈하였다. 여인은 양생을 집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이부자리와 휘장이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어젯밤 베풀었던 것과 비슷했다.²⁹⁾

때는 중추 열여드레, 달은 아직 솟지 않았는데 멀리 바라보니 나무숲 사이에 서 등불이 하나 별빛처럼 깜빡거리고 있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길을 더듬어 앞으로 나갔다. 싸늘한 안개가 어리고 들풀은 길게 자랐는데 이슬이 흠뻑 내려 촉촉히 젖어 있었다. (중략) 하생이 이상히 여기며 몰래 들어가 방 안을 엿보니, 나이 이팔 청춘의 아름다운 여인이 각침(角枕)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아 비단이불을 반쯤 내려덮고 있었는데, 수심에 젖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다.³⁰⁾

쓸쓸하고 황량한 무덤 속에 든 채로 한숨과 눈물로 깊은 한(恨)을 토로하는 여인들. 그 속에서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몸을 내민 끝에 마침내 힘겨운 접촉을 이루어 지워졌던 욕망을 불꽃처럼 펼쳐내는 여인들. 이 모습은 영락 없이 집이라는 좁은 감옥 속에 죽은 듯 간혀 지내는 여성의 표상이다. 인간 본연의 욕망이 외면되고 지워지니 그가 있는 곳은 곧 '무덤'이 된다. 〈만복사저포기〉는 그 무덤 속에서 눈물짓고 있는 여인들이 한들이 아니었음을 말한다. 정씨와 오씨, 김씨, 유씨 등이 차례로 나서서 '무덤 속의 삶'을 토로하는 모습은 현실 속 수많은 여성들의 내면풍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무덤 속 등불엔 불꽃도 없으니 이 밤을 어이하리.
북두칠성 가로놓고 달도 반쯤 기울었네.
서러워라, 무덤에는 찾아오는 이 없이
푸른 적삼 구겨지고 귀밑머리 헝클어졌네.³¹⁾

29)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이지하 옮김, 『금오신화』, 민음사, 2009, 17~18쪽.

30) 〈하생기우전〉. 신광한 지음, 박현순 옮김, 『기재기이』, 범우, 2008, 127~128쪽.

억눌리고 지워진 욕망은 원한이 되고 그 자신은 물론 세상을 위해한다. 그것은 드러나야 하고 해소돼야 한다. 상처로 얼룩진 서사는 치유되어야 하고 지워진 존재는 '존재하는 존재'로서 실존(實存)이 되어야 한다. 작품 속의 여성과 작품 밖의 여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위 작품들은 명혼이라는 특별한 문학적 모티프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말하자면 그 작품서사는 현실이라는 무덤 속에 질식돼 가는 자기서사에 드리워진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텍스트에서 명확히 죽음을 말하고 무덤을 묘사한 경우들만이 아니다. 애정전기소설 작품 속 여성들의 처소는 이면적 속성 면에서 무덤에 해당하는 의미성을 발현하곤 한다. 운영을 포함한 열 명의 궁녀가 갇혀 있는 수성궁 별궁은 안평대군에게 아름다운 화원(花園)이겠지만, 여성들에게는 하나의 감옥이고 무덤이었을 따름이다. 어떻게든 살아있음을 확인해 보려고 애타는 몸부림을 시도했던 운영의 서사적 귀결이 좁은 방 안에서의 죽음이었음은 그곳이 하나의 '산 무덤'이었음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그것은 단지 궁녀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생전>의 배도나 선화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나 <위경천전>의 소속방이 깃들어 있는 별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적 욕망이 외면되고 존재가 그림자화된 상황에서 그것은 하나의 무덤이고 죽음이었다는 뜻이다. 결혼한 부녀들, 예컨대 <포의교집>의 초옥이나 <삼한습유>의 향랑이 속해 있던 공간도 영락없는 감옥이고 무덤이었다. 향랑 같은 경우는 죽음을 통해서 가까스로 무덤을 벗어나거니와, 슬픈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더 찾아서 열거하기로 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 무덤이 가득이니까.

주목할 것은 다수의 작품에서 무덤 속 여성의 몸부림이 외적 노출과 접속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그 지점에 누가 있느냐면 한 명의 남성이 있

31)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이지하 옮김, 앞의 책, 19쪽.

다. 최치원과 양생, 하생, 그리고 김진사와 주생, 위경천, 효렴 등이 그들이 다. 간절한 존재적 외침이 벽을 넘어선 연결을 가능하게 한 상황이거나, 눈여겨볼 것은 그 남성들의 형상과 서사다. 그들은 예외 없이 그 자신 고립과 단절을 절감하며 외로움과 좌절감의 심연에 닿아 있었던 인물들이다. 그리하여 그들 남성과 여성은 서사 차원의 깊고 내밀한 접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니, 일컬어 경계를 넘어선 '존재적 연대'였다고 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여성의 주도적 역할이다. 위에 거론한 작품들에서 남녀간 결연 과정은 대부분 여성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발견에 이은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여성들은 온 존재를 다하여 남자에게로 향한다. 본연의 욕망이 제 뜻대로 실현되는 삶의 세계를 향한 엄중한 발걸음이다. 돌아보면 애정소설에서 여성이 미리 마음이 통하지 않은 남자와 결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를 '애정서사의 제1법칙'이라 해도 좋을 정도다. 그것이 현실 속 여성들의 깊은 소망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작품 속 인물이 되어서 제 발로 무덤 밖으로 걸어나가 내면의 욕망을 숨숨이 풀어내는 가운데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실존적 투쟁이고 확장적 자기실현이다. 그렇게 그들이 존재하는 '산 무덤' 속에는 불이 지펴지고 온기가 흐르게 된다. 비록 상상 속의 일이라지만, 그 무게감은 막대한 것이었다. '평생에 걸친 자기격리'라는 상황을 환기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작품 속 남자 주인공의 형상에는 작가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먼 세상의 외로운 나그네로서의, 또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은 이방인으로서의 자의식이고 자기서사다. 그리하여 작품 속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접촉과 결합은 작품 밖 남성과 여성의 연결이고 접촉이기도 하다. 일컬어 작품서사를 매개로 한 자기서사의 사회적 연대라 할 수 있거나, 그것은 크나큰 현실적·시대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수많은 여성들이 간혀 있는 현실의 감옥을 깨는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다.

아니, 작품을 매개로 긴밀한 서사적 접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깨어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의 본래적인 힘이고 역할이다. 그러한 몸짓과 에너지에 의해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변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전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적 가치요소라고 할 만한 면모다.

작품서사를 매개로 작품 밖에서 서사적 접속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주생전>의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특별히 <주생전>을 선택한 것은 이 작품이 ‘무책임한 남성이 유발한 비극적 서사’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짙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 또는 그 너머에 어떤 서사적인 매개와 접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새롭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터다.

앞서 <사씨남정기>에 대하여 ‘대륙에 홀로 던져진 주인공을 따라서’라는 제목을 내건 바 있다. 이때 그 움직임과 따라감의 주체는 여성이었다. 좁은 감옥을 벗어나 펼쳐내는 상상적 자유의 여정이다. 주목할 것은 그것이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도와 양상에 차이가 있지만, 남성들 또한 현실의 테두리에 갇힌 존재였다. 고루한 규범적 틀이나 부조리한 권력의 카르텔을 온몸으로 느끼는 지식인들에게 세상은 하나의 답답한 감옥이자 암울한 무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시습은 그 전형적인 경우였거니와, <주생전>의 작가인 권필도 다르지 않았다. 현실과 깊은 불화를 겪는 한 명의 지식인으로서 그가 전쟁의 언저리에서 만났다는 ‘주생’이라는 인물이란, 그리고 그가 펼쳐내는 삶의 서사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미미한 티끌이 연약한 풀에 깃들어 있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명에 구속되고 속세에 매몰되어 나의 인생을 보내리오?”

주생은 이때부터 과거 공부에 전혀 뜻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상사 속에 들어 있던 수천 냥을 꺼내어 그 절반으로 배를 한 척 사서 강호(江湖)를

왕래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잡화(雜貨)를 거래하여 여기에서 생긴 이득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는 아침에는 오(吳) 땅에, 저녁에는 초(楚) 땅에 머무는 등 오로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돌아다녔다.³²⁾

과거시험과 공명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배를 사서 올라탄 뒤 강물에 몸을 맡긴 채로 머나먼 대륙을 새처럼 바람처럼 흘러다니는 사내……. 허위와 부조리로 가득한 예교의 땅에 우울히 갇혀 있는 한 남자에게 이러한 모습이 전해주는 느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모름지기 이 장면에서 작품 밖 남자(또는 남자들)의 서사는 해체적 허물어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벗어남과 떠남의 충동에 전율하면서 온몸이 흔들리지 않았을까.³³⁾

작품 속 사내의 서사적 귀결을 미리 말하자면, 그는 속절없이 죽는다. 어디에서인가 하면 이곳 조선 땅에서. 피가 흐르고 비명이 난무하는 전쟁터, 그 죽음의 땅 크나큰 무덤에서. 무기력과 우울이라는 병에 갇혀서.³⁴⁾ 작품 속에서 죽은 것은 주생이지만, 실상 그것은 ‘나’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이다. 이 작품이 진정 비극적인 것은 ‘조선이라는 죽음의 땅에서의 죽음’이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남성의 서사는 작품 안과 밖에서 여성의 서사와 만난다. 주생은 우연히 도달한 고향 땅에서 심리적 죽음 속에 갇혀 있던 배도와 만나 서사적 연결을 이루며, 다시 규중에 슬픈 꽃으로 갇혀 있던 선화와 만나 서사적 접속을 이룬다. 주생이 배도를 외면하고 선화를 선택할 때, 그리하

32) <주생전>.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5~36쪽.

33) 세상을 주유하는 주생의 형상에 담긴 자유의 충동에 대해서는 조홍윤이 그의 의미맥락을 짚어낸 바 있다. 조홍윤, 「합리적 선택이 가져다준 파행」, 신동훈 외, 『신로맨스의 탄생: 고전문학에서 배우는 사랑의 기술』, 역사의아침, 2016, 90~91쪽.

34) 박일용은 <주생전>에서 주생이 연애를 펼치는 오초(吳楚) 땅이 ‘소망 공간’이라면 조선 땅은 ‘현실 공간’으로서 대립구조를 형성함을 논한 바 있다. 박일용, 「<주생전>의 공간구조와 환상성」,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162~163쪽 참조. 본 연구의 공간 인식은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여 배도가 다시 우울이라는 무덤에 갇혀 쓰러질 때 작품 밖의 여성들은 좌절하고 비통해하며 분노하겠지만, 좌절과 비통은 남성의 것이기도 하다. 마디마디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한 제문을 읽으며 망자를 위한 제사를 마치고 쓸쓸히 뒤돌아서는, 배에 올랐지만 “차마 노를 저어 떠나갈 수가 없었”³⁵⁾던 주생은 또 하나의 외롭고 슬픈 존재일 따름이다. 그 자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는, 너무 밋지만 진짜로 미워할 수는 없는 한 인간의 초상이다. 그 장면에서 남녀 여부를 떠나 인간의 실존이라는 차원에서의 서사적 접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편향적 시각일까? 그 대목은 그렇다 쳐도, 그가 선화라는 정인을 남겨두고 이역만리 낯선 땅에 와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과응보야. 잘 죽었어!” 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죽음이 선화라는 한 여인의 아득한 좌절을 수반한 것임에랴. 남녀를 불문하고 그 죽음을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것이, 그 자신의 것이기도 한 ‘무덤에 갇힌 서사’를 응시하는 것이 상례일 것이다. 그러한 비극을 넘어서는 길은 무엇일지를 헤아리면서 말이다. 지식인 작가와 남녀 독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심리적·정서적 연결에 대해 그것을 ‘문학을 매개로 한 서사적·사회적 연대’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주생전〉을 예로 들었지만, 〈위경천전〉의 경우도 기본 구조와 맥락이 이와 다르지 않다. 남녀 주인공의 심리적·행동적 연대가 더 뚜렷이 그려진 〈운영전〉과 〈영영전〉, 〈최척전〉, 〈삼한습유〉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작품 하나하나는, 그 작품을 둘러싼 제반의 문학 행위는 그 이면에서 실존적 투쟁으로서 서사적 자기표현과 접속이라는 미적 운동이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작은 결론이다. 그렇게 이어진 흐름이 곧 소설사이고 문학사이며, ‘삶의 역사’라 해도 좋을 것이다.

35) 이상구 역주, 앞의 책, 59쪽.

4) 돌아옴을 넘어서 나아감으로. 그렇게 변화한 세상

모든 움직임은 변화를 낳는다. 서사 차원의 존재적 몸짓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겉으로 외현되지 않는 상상적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해도, 그 또한 엄연한 삶의 실체다. 한 개인의 심리적 변화는 모여서 자기서사의 변화가 되고, 자기서사의 변화는 모여서 세상의 변화가 된다.

그 변화의 증거 하나. <구운몽>의 서사와 <옥루몽>의 서사는 기본 구조가 유사하지만, 둘 사이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양적·현상적 차이를 넘어선 질적 차이이다. 예컨대 상황을 주도해가는 여성인물의 정체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 <구운몽>에서 인간관계를 주도하는 여성인물은 정경패와 이소화 등 사족 내지 왕실 여성이다. 그들의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지휘 아래 여덟 남자의 조화로운 공생이 펼쳐진다. 이에 대하여 <옥루몽>의 서사를 주도하는 여성들은 미천한 출신의 첩실 강남홍과 벽성선, 일지련이다. 정실인 윤소저와 황소저가 그림자에 가까운 상태로 가정 내에 머무는 것과 달리 이들 세 인물은 가정 안과 밖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중대한 역할을 행한다. 전통적인 귀천의 위계가 전복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한껏 확장된 형국이다.³⁶⁾ 비록 문학적 상상 차원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심리적·서사적 진실이 반영돼 있다고 봄이 옳다. 신분이나 성별을 떠나 신념과 포부, 능력에 따라 합당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공감대의 소설적 발현이다. 그것은 광대하고 심원한 서사 형태로 갈무리돼 있음으로 해서 큰 무게감을 현시하고 있다. 100여 년에 걸친 시간차를 두고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인바, 그러한 변화의 주요한 동력이 곧 소설이고 문학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면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전방위적인 미적·존재적 분투가 세상을 질적으로 바꾸어왔다는 뜻이다.

소설 작품들에서 그러한 변화의 사례를 찾아서 논하기로 하면 한이 없으

3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동훈, 앞의 논문, 2016, 408~411쪽 참조.

리라. 생각나는 대로 써보면, 계속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가련한 존재로서 속향의 서사가 온몸으로 벽에 ‘부딪쳐’ 그것을 무너뜨리는 춘향의 서사로 이행된 사실이 먼저 떠오른다. 자기를 무참히 내친 가장을 구한 뒤 가모장의 자리로 돌아와 예교적 질서를 회복하는 〈사씨남정기〉 속 사씨의 서사와 남성권력에 대한 순응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끝까지 불화를 이어가는 〈현씨양옹쌍린기〉 속 주소저·윤소저 서사³⁷⁾ 간의 질적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한 작품만 따로 특기하자면, 김소행의 명작 〈삼한습유〉는 작품 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여성 서사를 중첩하면서 그 이행을 형상화하고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끈다. 가부장적 현실이라는 감옥 속에서 속절없이 좌절해서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향랑의 서사와 자발적 의지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짝으로 삼은 뒤 자기 삶을 오롯이 펼쳐나가는 향랑의 서사가 그것이다. 한 인물의 서로 다른 두 인성이 계기적이고 대립적인 형태로 중첩된 형국이다. 앞쪽의 서사가 이전까지 통용돼 왔던 과거적인 여성 서사라면 뒤쪽의 서사는 새롭게 찾아진 현재적·미래적 여성 서사다. 두번째 향랑 서사가 판타지적 기법으로 이상화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학적 함의 면에서 그것을 변화된 사회상과 인간관의 반영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여성들은 ‘부딪혀 죽음’ 대신 ‘부딪쳐 삶’의 길로 서사의 길을 바꾸고 있었고, 그러한 시대적 흐름이 당대의 진보적인 문인에 의해 문학적으로 갈무리된 것이라는 관점이다. 앞서 말한바 ‘서사적 접촉과 연대’에 해당하는 면모다.³⁸⁾

37) 〈현씨양옹쌍린기〉 속의 꿈 같은 두 남성[兩熊]에 대한 기린 같은 두 여성[雙麟] 주소저와 윤소저의 서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동훈, 「현씨양옹쌍린기에 그려진 귀족 사회의 허와 실」,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 2009, 444~459쪽 참조. 참고로 ‘兩熊’은 규장각본 필사본의 표제임을 밝혀둔다.

38) 〈삼한습유〉의 작가인 김소행은 그 자신 서얼 출신 지식인이자 문인으로서 세상의 차별과 부조리를 온몸으로 경험한 인물이다. 그가 차별과 폭력 속 여성의 처지에 공명하면서 억압에 맞서는 저항적 에네르기와 서사적 접촉을 이룬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김소행의 삶과 세계관, 문학행위에 대해서는 조혜란, 『삼한습유:

후대 소설 속의 여성 서사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많은 여성 주인공들이 ‘여자가 응당 있어야 할 곳’으로의 돌아옴 대신 ‘나아감’을 관철한다는 사실이다. 여주인공들이 전장에 출전하여 남성을 뛰어넘는 ‘미친 활약’을 하는 모습을 폭넓게 볼 수 있거니와, 〈구운몽〉이나 〈사씨남정기〉 같은 이른 시기 소설에서 보기 어려웠던 면모다. 특히 홍계월이나 정수정 같은 경우는 부녀(婦女)의 자리로 안착하는 여타 여성영웅들—예컨대 박씨나 장애봉, 조은하 등—과 달리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정에 편입되는 상황에 불화를 나타내며,³⁹⁾ 이후 국가 위기에 당당히 여성 장수로서 출전하여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도 한다. 〈옥루몽〉의 강남홍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그는 기꺼이 한 남자의 아내 자리를 선택하지만, 제후라는 직책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으며 결혼 이후에도 국가의 안위를 돌보는 역할을 이어간다. 돌아옴과 나아감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다.

돌아옴의 퇴로를 결연히 끊고서 나아감을 선택한 특별한 여성 인물의 사례로서 〈방한림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남성으로서 사회적 삶을 선택한 방관주는 끝까지 여성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바깥세상 속의 사회적 삶을 지속해 간다. 남자의 모습으로 행하는 일이지만, 모든 독자들은 그가 여성임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여성이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성역할을 거부하고 제 의지대로 살고자 한 여성. 그가 삶의 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과 회로 애락은 여성 독자들에게 절대 ‘남의 것’이었을 리 없다. 그것은 여성의 내면에 도사린 강렬한 욕망의 분출이며, 이전 시대와 다른 여성적 자기서사의

19세기 서얼 지식인의 대안적 글쓰기], 소명출판, 2011, 제2장 및 제6장의 논의 참조.
39) 어쩔수없이 남자와 결혼하게 된 홍계월과 정수정의 역정에는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제 남편에게 애교를 부려 사랑을 얻고서 범람하게 구는 애첩을 칼로 베어 죽인 일이 그것이다. 여성 독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준 대목이라서 되풀이 표현되었겠거니와, 그것은 남성에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여성이 남성에 복속된 여성을 단죄한 일로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자기만란적 서사가 단적으로 표출된 장면이라고 할 만하다.

전면적 발현이다. 방관주가 뜨겁고도 무거운 부대낌의 삶을 온몸으로 감당하다가 젊은 나이에 쓰러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전해주는 문학적 파토스는 세상 어떤 대장군의 종말보다도 울림이 크다.

승상이 병부와 김소저를 오라 하여 경계하고 영결하니 병부와 김소저 망극함을 진정치 못하더라. 날이 기울도록 영부인과 영결하는 언사 자약 간절하더라. 차회라. 이우고 기운이 거슬러 명이 진하니 향년이 삼십구 세라. 상하의 곡성이 창천하고 영부인이 자로 기절하니 영공이 붙들어 구하나 기운이 진하고 호흡이 천축(喘促)하여 명이 진하니 석회라. 또한 천명으로 돌아가 천상에 가 양인이 쾌히 즐기도다.⁴⁰⁾

40년을 못 채운 삶이었으나, 삶의 무게감은 그 몇 배에 해당한다. 여성 승상 방관주의 죽음은 거목의 쓰러짐과도 같다. 그 거목의 버팀목이었던 아내 영혜빙이 비탄 속에 함께 세상을 버리는 모습은 비극적 파토스를 한껏 증폭한다. 이를 두고 한 여성의 불온한 삶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바가 아니다. ‘나 아닌 나로 살아야 했던 삶’의 종결이라고 보는 것이 더 어울린다.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넓은 이 세상을 마음껏 누비며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편안히 천수(天壽)를 누리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충동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 어쩔 수 없이 여성으로 살아야 했던 수많은 여성 독자들은 방관주와 영혜빙이 죽을 때 그들 또한 함께 죽으면서 재생을 희원하고 기약했을 것이다. ‘천상(天上)’으로 표상된 ‘다른 세상’에서 걸림없이 쾌히 즐길 수 있는 삶으로의 재생을.⁴¹⁾

40) <방한립전>. 정병헌·이유경 엮음,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244쪽.

41) 부연하면, 그러한 나이감은 사족 여성 외에 또 다른 현실적 질곡 속에 있었던 서민적 주인공들에게서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인물로 한정해서 보면, 먼저 <심청전>의 심청은 집과 마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거친 바다로 나아가며 용궁이라는 신 세계를 거쳐 대륙의 중심으로서 황성에서 제2의 삶을 펼쳐간다. <변강쇠가> 속 옹녀의 동선도 주목할 만하다. 주변사람들의 조롱과 격하에 한바탕 욕을 해주고 길을 떠

그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두고 허튼 문학적 판타지라고 논단하지 말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 미적 투쟁인 동시에 실존적 투쟁이다. 그 에너지가 모여 세상은 바뀌는 것이었으니, 소설적 허구를 넘어서 실제 현실에서 그러한 나아감을 이룬 사례들이 있다. 여성의 한계를 온몸으로 부딪쳐 헤쳐내면서 세상의 당당한 주인공으로서의 서사를 살아가고 완성해간 역사적 여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삶의 족적을 널리 탐구해온 연구자들의 논의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 찾다 보니 두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함께 쓴 책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⁴²⁾이고, 또 하나는 역사학자 겸 작가가 쓴 책 『누가 나를 조선 여인이라 부르는가』⁴³⁾이다. 두 책은 각기 14명과 9명의 조선 여성의 삶을 평전 형태로 다루고 있다. 임윤지당과 김만덕, 김금원, 윤희순은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인물들이다. ‘시대를 뛰어넘은 조선 파워레이디 9인의 이야기’라는 설명이 붙은 두번째 책의 목차에 제시된 인물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 여성으로 성인의 도를 이루리라
 김만덕(金萬德; 1739~1812) 평생 모은 천금으로 제주 백성 천 명을 살리다
 사주당 이씨(師朱堂 李氏; 1739~1821)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머니의 열 달 기름만 못하다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 1759~1824) 일상 속에서 꽃핀 실학정신
 강완숙(姜完淑; 1761~1801) 천주교의 신앙으로 자유와 평등을 꿈꾸며 순교하다

난 그녀의 동선은 멀리 평안도로부터 남도 지리산까지 이른다. 이 외에, 우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재혼을 통해서 새 삶을 선택하는 <장끼전> 속 까투리의 동선도 주목할 만하다.

42)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1~359쪽.

43) 임혜리, 『누가 나를 조선 여인이라 부르는가』, 가람기획, 2007, 1~304쪽.

김금원(金錦園; 1817~?) 조선 최초로 여성 시사를 결성하고 맹주가 되다
진채선(陳彩仙; 1847~?) 조선 최초로 여성 명창이 된 소리꾼
윤희순(尹熙順; 1860~1935) 여성 의병장에서 항일전사로 나서다
남자현(南慈賢; 1872~1933) 만주벌에 떠도는 여성 독립투사의 붉은 혼

보듯이 주어진 경계를 넘어서, 이름 없는 자가격리의 삶을 넘어서 보란 듯 세상의 주역으로 나선 인물들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누가 나를 조선 여인이라 부르는가’라고 했지만,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내가 바로 조선의 여인이다’라고. 왜냐하면 저 삶은 예외적으로 푹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이땅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리고 그와 서사적으로 연대한 남성들이, 함께 꿈꾸고 만들어온 자기서사의 현실적 발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 인물 가운데 딱 한 명, 두 책에서 함께 다룬 김금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에서 뽑은 김금원의 프로필은 ‘외씨버선발로 금강산을 밟은 남장 처녀, 김금원’이다. 좁은 집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넓은 세계로의 여행을 꿈꾸고 마침내 그것을 실행한 여성. 그 움직임의 저변에는 소설적 상상을 통해 대륙을 누볐던 수많은 여성들의 서사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서사의 힘으로 세상에 나간 김금원은 삼호정 시회라는 여성 문화공간을 만들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 나간다.

1817년에 시작해서 ‘?’로 마감된, 아니 ‘열린’ 그 삶의 서사의 연장선상에 누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근대 여성 문인과 예술가, 사회운동가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가 있다. 세상의 당당한 주체로서 사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여성들이 곧 김금원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고전 문학이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이라고.

4. 존재론적 사유로서 만유의 본원적 연결성

1) 고전문학의 초월적 요소를 보는 시각

본 연구 화두는 ‘고전문학’이고 ‘서사’이다. 서사는 이면적 심층에 존재하는 것이라 했거니와, 이제 고전문학을 고전문학답게 한 세계관적 바탕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고자 한다. 기본 논제는 현실 너머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과 만유의 본원적인 연결성이다.

본 연구자는 예전에 고전문학의 철학적 가치를 논하면서 ‘우주자연과의 원초적 소통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통찰’을 첫번째 요소로 들었었다. 문학은 초창기부터 인간과 세계를 근원적 차원에서 소통시키고 조화시키는 힘을 발휘해 왔으니, <구지가>와 <해가>, <도술가> 등에서 그 원초적 면모를 볼 수 있다. 건국신화와 무속신화 또한 신으로 상징되는 근원적인 힘과 소통하고 감응하는 것을 본질적 지향으로 삼았으며, 사대부의 강호문학(江湖文學)은 자연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세상의 근본을 응시하며 존재의 의미를 통찰하는 문학이었다.⁴⁴⁾ 고전문학은 ‘신과 우주를 향해 열린 언어’이자 ‘우주의 가룩한 일원으로서 자기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고소설에 대하여 이전의 문학과 질적 차별화를 이룬 문학갈래라고 말한다. 이때 차별성의 기본 축으로 사유된 것이 ‘현실성’이다. 스토리와 스타일, 디테일상의 현실성 외에 세계관적 현실성이 핵심 요소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소설작품이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 재현하는 양상에 주목하는 가운데 거기 시대적·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왔다. 작품 속의 초월적 요소까지도 현실적 문맥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주류적 흐름을 이루어왔다.

44)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128~129쪽.

우리가 앞서 살폈던바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숙향전> 등은 작품 전반에 걸쳐 초월적 요소가 짙게 깔려있는 작품들이다. 환생 모티프를 기본 축으로 삼고 있는 <구운몽>이나 <숙향전>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거니와, <사씨남정기>의 경우도 초월적 요소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 주인공 사씨는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표현되며, 여러 천정(天定) 인연이 그녀의 남정 여로를 아로새긴다. 8년의 고난과 남편 구출 등도 조상신의 현몽에 의해 예고되고 준비된 것이었다. 사씨와 이비(二妃)와의 만남도 경계를 넘어선 초월적 맥락에서 펼쳐진다. 사정이 이리함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요소보다 갈등과 욕망의 현실성을 주목하여 부각해 왔는데, 교씨가 펼치는 욕망의 현실성에 주목한 김현양의 논의⁴⁵⁾나 사씨 서사의 현실적 면모를 강조한 지연숙의 논의⁴⁶⁾가 좋은 사례가 된다. <구운몽>에 반영된 중세적 사회 체계에 주목한 정출현의 논의⁴⁷⁾나 초월적·전기적 성격에 대한 반명제로서 <구운몽>의 회화적 유머에 주목한 신재홍의 논의⁴⁸⁾ <숙향전>의 초월적 설정들을 현실적 문맥에서 해석하고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이상구의 논의⁴⁹⁾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연구 사례로 들 수 있다.

소설 작품을 살핌에 있어 세계관적 현실성을 중시하는 것은 근대의 합리적 가치관과 현실적 문학관에 익숙한 연구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대 독자들의 입장에서 고전문학의 성격과 가치를 오롯이 짚어내고자 할 때, 작품 속의 초월적인 요소는 그 맥락과 가치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고소설에서 단순한 문학적 장치를 넘어서 엄연한 작품적 실체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단적으

45) 김현양, 앞의 논문.

46) 지연숙,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 『민족문학사연구』 17, 민족문학사연구소, 2000.

47) 정출현, 앞의 논문.

48) 신재홍, 「구운몽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49)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로 말하여, 고소설 속의 초월적 요소는 앞서 말한바 ‘신과 교감하고 우주와 소통하는 본원적 언어’로서 의의를 지닌다. 거기에는 당대 사람들의 존재론적 철학이 반영돼 있다.

살펴보면 눈앞의 현상계를 넘어서 초월적 세계를 사유하고 그 의미작용을 서사화하는 일은 수많은 고소설 작품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최치원>과 <금오신화>, <기재기이> 같은 초기 전기소설의 초월적 성격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겠거니와, 현실적 비극을 리얼하게 펼쳐낸 것으로 평가되는 <운영전>의 경우도 남녀 주인공의 천계 환생이 중요한 서사적 축을 이루고 있다. 운영이 현실에서 겪는 비극을 더 크고 심원한 생명적 작용 속에서 사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짙은 파토스와 주제적 의미를 내재한 그 대목을 도외시하는 것은 입체적 작품을 평면화하면서 미적 가치를 스스로 격하하는 것과 같다. 한 작품을 더 들면, 소설적 현실성 면에서 더 큰 진보를 이루어 현실적 리얼리티의 진수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최척전>의 경우에도 초월적이고 선형적인 요소가 여전히 작품 속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장육금불’의 존재를 지워버린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최척전>일 수 없다.

또 다른 작품들을 열거하는 일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작품 텍스트나 타난 초월적인 요소들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그 세계관적 맥락과 서사적 의미를 투시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작품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곧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이면적 상호작용을 짚어보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 논의로 넘어간다.

2) 고소설 속 초월공간의 서사적 의미와 기능

다시 <구운몽>으로 돌아가 본다. 앞서 이 작품 속 여성인물들의 서사가 당대 여성 독자들에 내면에 새로운 서사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말했었다. 격리와 고립을 넘어서 벗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나눔과 동반의

서사, 그리고 개성을 달리하는 여덟 명의 여인이 되어 펼쳐내는 다면적 욕망 발현의 서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면에 강렬하게 잠재해 있는 자기 서사의 미적 발현이다.

주목할 사항은 그 여덟 여인의 서사적 뿌리와 귀결이다. 그들은 현실세상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 다른 신분으로 태어나 서로 다른 삶을 살지만 뿌리는 다르지 않았으니, ‘팔선녀’가 그것이다. 그들은 선계에서 함께 위부인을 모시며 단짝으로 어울려 유유자적하던 선녀들이었다. 그 가없던 평화가 석교(石橋)에서의 작은 욕동(慾動)의 결과로 희로애구 애오욕의 지상적 삶으로 변전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일련의 삶의 여정은 본래의 자리인 천상 선계로 돌아가기 위한, 욕망을 풀어내고 씻어내며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과정이었다.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도(道)를 구하여 영원한 평화의 세계로서의 극락(極樂)을 실현한다.

작품에서 여덟 남자가 양소유와 함께 돌아갔다는 그곳 본원적 세계는 과연 단순한 문학적 장치이고 상상적 판타지일 뿐일까? “하여튼 그랬더라.” 하면서 웃고 지나치면 되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 현실 속의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상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 너머의 심원한 섭리와 힘으로 움직이거니와, 그에 대해 몸과 마음을 여는 것이 옛사람들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꼭 어떠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되 현실 너머에 오묘하고 심원한 또 다른 세계가 거대한 뿌리처럼 존재한다고 보는 인식이다. 그를 통해 현존의 한계를 초극하는 서사적 길을 찾는 것이 고전의 세계관적 체계였다.

〈구운몽〉 속의 연화도량과 신선계는 그 본원적 세계의 문학적 표상에 해당한다. 그로부터 인간이 나오고 또 돌아가는 곳이다. 그곳은 양소유와 여덟 남자들이,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여정을 마친 세상 사람들이 마침내 찾아 돌아갈 곳이다. 작품서사와 만나는 독자들에게 있어 작중의 여덟 남자

는 곧 팔선녀였던 것이고, 그 인물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여성 독자들은 그 자신이 곧 선녀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선녀의 서사를 마음에 새김으로써 현실 속 자가격리와 고립의 삶을 ‘전생의 죄’를 씻는 과정으로 여겼고, 그것을 감당해냄으로써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사유했다는 뜻이다. 자기서사의 치유와 확장, 초극에 해당하는 미적 체험의 과정이다.

다시 작가의 어머니 윤씨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 작가가 이 작품을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썼다고 할 때 그 위로의 끝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 전생에 어떤 죄를 지으셨는지 이 불효한 유복자의 어머니로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의 고단하고도 빛나는 삶, ‘선녀’의 그것이었어요 이제 곧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지요 제가 쓴 이 글을 통해서 선녀들의 또 다른 화신들과 만나서 생애를 그윽히 돌아보시고, 다시 선녀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겪는 이 시련도 하늘이 시키신 바예요. 잘 감당하고 씻어내고서 저의 하늘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작가가 어머니에게 전한, 이 땅의 여성들에게 전한 궁극적 위로가 아니었을까?⁵⁰⁾

물론 이는 〈구운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고소설 작품 속의 수많은 주인공들은 천상 선녀이거나 그에 준하는 초월적 존재의 화신이다. 〈구운몽〉의 여덟 남자처럼 〈옥루몽〉 속 다섯 남자들 모두 천상 선녀의 화신이며, 숙향이나 숙영낭자도 전형적인 작강 선녀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각종 군담소설과 영웅소설, 그리고 가문소설 속의 주인공들도 다르지 않다. 〈금방울전〉의 금방울(금령)은 용녀의 화신이고 〈사씨남정기〉의 사정옥은 관

50)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이강옥의 논의를 주목할 만하다. 그는 〈구운몽〉의 초월적 설정에 담긴 실제적·세계관적 의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작품이 현시하는 현실 초극적인 희망의 서사에 대해 그 맥락과 구조를 불교철학적 관점에서 깊게 분석해내고, 그것이 작가가 어머니에게 전한 위로인 동시에 이 작품의 교육적 의의임을 밝힌 바 있다. 이강옥, 앞의 논문, 133~153쪽.

음보살의 화신이어서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 그 서사적·세계관적 맥락은 물론 다르지 않다.

그 중 〈사씨남정기〉를 보자면, 주인공 사씨가 현실세계에서 겪는 일련의 고통은 ‘본래부터 정해진 인연’으로 그려진다. 어떻게든 겪어야 할 본래적 운명이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작중인물의 서사를 넘어서 독자들의 자기서사로 접속되고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아득한 격리와 고향의 삶에 대하여, 또는 자신을 못살게 구는 현실의 수많은 적대와 질곡에 대하여 그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필연적 과업으로 사유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무기력한 체념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작품 속 사씨가 대륙을 가로지르는 가운데 그 운명을 감당하면서 초극해내듯이, 그와 함께 하는 독자들 또한 직면과 초극의 본원적 과정을 서사적으로 체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의 험한 고난에 짓눌려서 천도(天道)의 무심함을 탄하는 사씨에게 아황과 여영이 전해주는 다음과 같은 위로는 작품의 모든 독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다.

“유한림은 어진 사람이로되 나이 적고 조달(早達)하여 천하 사리를 살피지 못하는 고로 하늘이 일시 재화(災禍)를 내리어 하여금 크게 경계하고 부인으로 하여금 잠시 내침을 입었다가 그 개과(改過)함을 기다려 다시 부인을 돕게 함이니, 이는 다 상제(上帝) 유씨를 돕는 뜻이라. 부인이 어찌 이렇듯 조급하뇨. 부인이 스스로 악명을 일컫거니와 일찍이 부운(浮雲)이 잠깐 일월의 빛을 가리움 같은지라. 어찌 깨념하리오. 부인을 참소하는 자는 일시 비록 괴로우나 음란하기를 아닐 바 없이 하니 상제 그 죄악을 중히 하사 장차 대환(大患)을 그 몸에 내리울지니, 비컨대 독한 뱀이 사람 해하기로 능사를 삼고 버리지 똥과 흙 사이 섞여 있도되 그 추함을 알지 못하니, 이를 이르려 하면 입이 욱된지라. 어찌 차마 더불어 그 곡직(曲直)을 다투리오.”⁵¹⁾

51) 장서각본 〈사씨남정기〉. 김만중 지음, 류준경 옮김, 앞의 책, 350~351쪽.

‘여기의 나’에 앞서 비통한 삶의 역정을 온몸으로 초극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가혹한 선인(先人, 仙人)이 꿈의 형식을 빌려서 전해주는 저 위로의 말은 고립과 우울, 시련과 고통 속의 여성들에게 일종의 ‘신탁(神託)’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만하다. 모름지기 독자들은 그 자신 사씨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엄중한 삶을 마침내 감당하고 이겨내리라는 의지와 다짐을 몸에 새겼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서사는 올곧아지고 단단해지고 넓어졌을 것이다. 이런 서사적 과정을 두고 ‘재미를 위한 문학적 장치’라거나 ‘현실 도피적 망상’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사씨가 황룡묘에서 이비(二妃)를 만나는 장면은 <춘향전>에서 춘향이 몽중에 황룡묘에 가서 이비에게 위로를 받는 장면으로 재현된다. 양반 권력에 꺾박받는 처지의 춘향이 중국땅으로 가서 황실 여인들에게 위로를 받는 일에 대해 그 상황적 괴리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는 서사의 본원적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장면 속의 춘향은 현실의 한계와 질곡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본래적 자기와 대면하고 있는 중이다. 거대한 뿌리와 맞닿는 서사적 확장이고 강화다. 그러한 존재적 자기 초극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 처절하고 참혹한 ‘감옥살이’의 날들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이는 물론 춘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두루 해당하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⁵²⁾

판소리계 소설로 논의가 넘어간 길에 심청에 대해서도 잠깐 말해본다.

52) ‘열녀춘향수절가’를 비롯한 <춘향전> 후대 이본에서 춘향을 선녀의 화신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그 의미맥락을 새롭게 헤아려볼 수 있다. 현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춘향을 특별한 존재로 격상시켜서 독자와의 이질성을 자아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적 의미로 보면 ‘거대한 뿌리’와의 연결을 통해 춘향의 서사에 확장성과 영원성을 부여하는 일로 볼 수 있다. 춘향의 서사는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현상적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독자-본원적 세계에 몸과 마음을 열고 있는-와의 광범위한 연결성을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심청은 천상 선녀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출생한 첫 순간부터 가없는 시련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 어머니 괘씨부인은 고단하기 그지없는 세상살이를 자식에게 넘긴 채로 옥진부인 자리로 돌아갔거니와, 심청 또한 험난한 이 세상 여정을 마친 뒤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것은 하늘의 시킴이고 섭리이며, 하나의 운명이다. <심청전>의 서사적 이면에서는 본래적 섭리이자 운명적 힘으로서 천(天)이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하거니와, 작품에서 배어있는 ‘천도(天道)’에 대한 깊은 믿음은 단순한 허구적 장치나 심리적 의존으로 볼 바가 아니다. 그것은 고단하고 험난한 현실적 삶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찾아내고 지켜온 본원적인 삶의 철학으로 보아야 마땅하다.⁵³⁾ 작품 속에서 깊은 물에 빠진 심청 앞에 옥진부인이 나타나 격려하며 안이주는 일은 아황과 여영이 사씨와 춘향에게 전하는 위로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그들의 서사는 밀바탕에서 서로 통한다. ‘인간의 차원에서, 그리고 ‘삶’의 차원에서.

이러한 작품서사에 대하여 그것은 선택받은 특별한 주인공의 특수한 서사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고전문학의 세계에 있어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은 곧 선녀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남녀가 존재의 근원을 ‘하늘’로 표상되는 초월적·본원적 세계에 두고 있다는 것은 고전문학 전반에 걸친 기본적 세계관이자 존재론에 해당한다. 원형적 서사로서 창세신화에서 인간 남녀는 하늘의 분신으로서 세상에 내려진 것으로 말해지거니와, 모든 인간이 하늘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한국 신화의 기본적 사유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세계관적 체계는 전설과 민담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대표 민담으로 손꼽히는 <선녀와 나무꾼> 속의 선녀가 날개옷으로 은유된 ‘자유’를 잃어버린 채 ‘나’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며느리

53) <심청전>에 서사화된 천도(天道)에 대한 믿음과 현실 초극의 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동훈, 「판소리문학의 결말부에 담긴 현실의식 재론 -<심청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9, 판소리학회, 2005, 329~336쪽 참조.

/어머니로 살았던 이 땅 수많은 여성들의 원형적 표상이라는 사실⁵⁴⁾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단지 옛날의 일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선녀의 서사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세상에 한가득이다.

고단한 일상을 살고 있는 현실 속 여성과 천상 선녀의 연결이 잘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해 하나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그 노랫말은 이렇게 시작한다.

할 일이 전혀 없어 지하땅에 나리와서
 사방 산천 둘러보니 비였도다 비였도다
 옥난간이 비였도다 옥난간에 비틀 놓고
 비틀다리 양 네 다리 큰애기다리 양 두 다리
 앞다릴랑 솟아 놓고 뒷다릴랑 낮차 놓고
 가르새라 지른 양은 청룡황룡 부러졌네⁵⁵⁾

시골에서 여인들이 베를 짜면서 부르는 노래다. 위 노래에서는 생략됐지만, 〈베틀노래〉는 첫머리에 시적 화자를 ‘월궁에 놀던 선녀’로 명시하는 것이 상례다. 천상 선녀가 어찌다가 지하땅에 내려와서 이리저리 할일을 찾다가 베틀을 차려놓고서 베를 짜고 있는 중이다. 노래 안에서 베 짜는 사람은 선녀이고, 노래 밖에서 베 짜는 사람은 시골 할머니다. 선녀가 할머니고, 할머니가 선녀다. 이 땅의 수많은 여인들은 그 자신 선녀가 되어서, 심청이 되고 숙향과 숙영낭자가 되어서 천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세상사 회로애락을 ‘나의 것’으로 감당해 갔던 것이다. 선녀의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열심히! 그 가룩한 서사적 몸짓에 대하여 나는 이를 ‘존재적 투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이다.

54) 신동훈,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118~121쪽.

55) 1993년 경북 문경군 영순면 율곡리 윤경임(76세) 구연 〈베틀노래〉

한국민요대전 홈페이지 <http://www.urisori.co.kr/home/doku.php?id=cd1205>

3) 본원적 연결성 체현을 통한 자기서사 확장과 존재 실현

이어질 화두는 고전문학의 세계관적 바탕이자 사유방식으로서 존재의 본원적 연결성 문제다. 세상 만유는 경험적 한정성을 넘어서 시간적·공간적으로 무한히 이어져 하나의 우주를 이루며, 그 속에 실재하는 우리들은 거대한 생명 체계의 일부로서 존재적 영원성을 지닌다는 인식이다.

앞에서 다룬 작품들 중 어느 것을 가져와도 좋겠는데, 다시 <구운몽>을 들어서 말해 본다. <구운몽>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종의 ‘그림자’로서 본원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와 연결돼 있다. 양소유는 성진의 그림자적 발현이며, 진채봉을 비롯한 여덟 낭자는 팔선녀의 발현이다. 이때 양자가 실체와 허상의 관계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두 존재는 서로 층위를 달리할 뿐, 한쪽이 진짜이고 한쪽은 가짜라 할 수 없다. 연화도량 쪽에서 보면 이 세상이 그림자이겠으나, 이 세상에서 보면 연화도량이 꿈이다. 그 관계는 상대적이다. 이 세상과 저 너머의 세상은 서로 어울려서 하나다. 그 속에 움직이는 제반의 존재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존재론적 인식은 <구운몽> 결말부에서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전하는 가르침의 말에 핵심적으로 응축돼 있다.

“네 스스로 흥이 나서 잤고 흥이 다해 돌아왔으니, 그사이에 내 무엇을 간여 했겠느냐? 또 네가 ‘인간세상에 윤회한 일을 꿈으로 꾸었다’고 했으나, 이는 네가 꿈과 인간세상을 나누어 본 것일 뿐이라. 네 아직 꿈에서 완전히 깨지 못했도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데, 꿈속의 나비 입장에서 보면 나비가 현실에서 장자가 된 것이라. 다시 생각하니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끝내 분별할 수 없었느니라.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네가 성진을 네 몸으로 여기고, 네 몸이 꿈을 꾸는 것이라고 하니, 너는 몸과 꿈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구나. 성진과 소유, 둘 중에 누가 꿈이고 누가 꿈이 아니냐.”⁵⁶⁾

자세한 철학적 분석은 생략하거니와, 그 속에 존재적 연속성과 영원성에 대한 인식이 깃들어 있음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넓고 험한 세상 속 미미하고 유한한 번뇌의 존재로서의 ‘나’는 지금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앞과 뒤로 아득히 이어져 있다. 성진이 양소유이고, 양소유가 성진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 같은 존재가 아니며, 늘 같은 존재가 아니다. 존재는 끝없이 유동하며 변화한다. 어제의 성진과 오늘의 성진이 다르고 오늘의 양소유와 내일의 양소유가 다르니, 성진이 양소유가 같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 된다. 이렇게 발현되면 이런 성진이고, 저렇게 발현되면 저런 양소유다. 그렇게 그는 이러저러한 성진이자 양소유다. 같으면서도 늘 다른 무상(無常)의 존재, 그렇게 무한의 시공간 속을 움직여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서사적 존재로서 세상 만유이고 인간이다.

이런 인식체계에 대해 그것을 <구운몽>에 특수하게 반영된 불교적 세계관이 아니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하겠다. 존재적 연결성과 연속성에 대한 사유는 수많은 고전소설 속에서 세계관적 바탕이자 서사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불교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작품 <숙향전>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작품 속의 숙향은 거친 현실 속의 미미한 존재다. 어린 몸으로 버림받아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방황하며, 흉한 모해를 당해서 쫓겨나고, 차가운 물 속에 잠기고 뜨거운 불길에 갇힌다. 그리고 초라한 절름발이 행색에서 술집에서 노동을 이어간다. 이상구가 잘 지적한 대로,⁵⁷⁾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형상이다.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현실 속의 그는 고립돼 있고, 단절돼 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다. 자꾸만 존재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해가 될 정도다.

56) 김만중 지음, 정병설 옮김, 『구운몽』, 문학동네, 2013, 267쪽.

57) 이상구, 앞의 논문, 71~84쪽.

하지만 그는 한 명의 고립되고 단절된 미아(迷兒)가 아니었다. 작품은 그에게 예의 ‘거대한 뿌리’가 있음을 말한다. 천상의 소아선녀로서의 정체성이 그것이다. 숙향이 벽에 부딪혀 무너지려 할 때마다 ‘하늘’은 그 앞에 열려서 그가 한 명의 선녀임을, 영원성을 갖는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운다. 급기야 꿈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녀가 소아선녀로서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역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윽고 구름이 크게 이는 가운데 수많은 선녀들이 백옥으로 만든 가마를 좌우에서 모시고 왔다. 가마 안에는 흰 연꽃 한 송이를 든 선녀가 단정하게 앉아 있으니, 이분이 바로 월궁항아였다. 항아가 숙향을 보고 말했다. “반갑다, 소아야! 그간 인간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나와 함께 들어가 요지(瑤池)나 구경하고 가거라.”

숙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의 형상과 으리으리한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각양각색의 풍류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어떤 부처님이 젊은 선관을 앞세우고 들어와 옥황상제께 뵈오니 상제께서 그 선관에게 이르기를, “태을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떠하며, 소아는 만나보았느냐?” 하시니 그 선관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했다.

이어서 항아가 상제께 여쭙었다. “소아가 네 번 죽을 액을 겪었으니, 이제 복록을 정해주소서.” 상제께서 허락하시어 석가여래에게 수명을 정하라고 명하시니, 석가여래가 아뢰었다. “일흔 살을 정하나다.” 상제께서 북두칠성에게 자손을 정하라고 명하시니, 북두칠성이 아뢰었다.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하나다.” 또 남두칠성에게 복록을 정하라고 명하시니, 남두칠성이 아뢰었다. “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도록 정하나다.”⁵⁸⁾

숙향이 미약하고 허무한 줄 알았던 제 존재의 뿌리와 만나는 순간이다. 아득히 가려져 있던 과거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계시적으로

58) 이상구 옮김, 『숙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63~64쪽.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그 일련의 역사와 만나면서 숙향의 서사는 극적인 확장을 이룬다. 미약한 존재에서 광대한 존재로. 무상한 존재에서 영원의 존재로. 고립된 존재에서 우주와 연결된 존재로.⁵⁹⁾

다시 꿈에서 깨어나 ‘초라한 술 피는 처녀’의 자리에 돌아온 숙향에게, 그 꿈은 스쳐 지나간 허망한 환상일 수 있다. 만약 그대로 잊어버리고 지워 버렸다면, 그것은 허튼 에피소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에 새겨서 서사화하는 순간, 그것은 존재적 실체가 된다. 요지연 꿈에서 깨어난 숙향은 그 본원적 세계의 풍경을 수를 놓아 새긴다. 정성을 다해 한땀 한땀 수를 떠가는 과정은 그것을 자기서사로 각인하는 과정의 문학적 은유다. 그렇게 소아의 서사를 내면화함으로써, 그는 숙향인 동시에 소아가 된다. 어려울 때마다 천상의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자 선녀가 된다. 숙향이 자신과 신분이 아득히 다르고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는 이선과의 결합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은, 갖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 훌륭히 성취하는 일은, 그 극적인 서사 변화가 가져온 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세상 여행을 마치고서 숙향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천상 선간 소아선녀의 자리로. 그때의 소아는 소아인 동시에 숙향이다. 왜냐하면 숙향의 서사가 존재에 오롯이 깃들여 있으므로. <구운몽>에서 본처로 돌아간 성진이 성진인 동시에 양소유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진/양소유가 그랬던 것처럼, 숙향/소아는 그렇게 영원의 존재가 된다. 끝없이 새로워지고 끝없이 넓어지는 무상(無常)과 무아(無我), 또는 대아(大我)의 영원한 존재가.

서사적 역동과 확장은 작품 안에서뿐만 아니라 작품 밖에서도 펼쳐진다.

59) 김수연은 숙향의 요지연 체험에 대하여 이를 그녀가 현실적 존재에서 지상선(地上仙)으로 변화를 이루는 전환점으로 보고, 이를 축으로 하여 교감과 치유의 과정이 펼쳐지게 된다고 보았다. 김수연,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숙향전>」,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441~453쪽 참조. 주인공 숙향의 상승적·확장적 서사 변화와 그 치유적 기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

숙향의 서사와 공명하고 접속하며 너른 세상을 흘러가던 독자들은 숙향이 소아의 서사를 자기화할 때 그들 자신도 그것을 내면화한다. 그렇게 그들은 현실계의 숙향인 동시에 천상계의 소아선녀가 된다. 현실의 미약한 존재에서 거대한 본원적 힘과 접속된 고귀한 능력자가 된다. 그 하루하루의 일상은 무상한 번뇌의 진애(塵埃)가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적 과정이 된다. 그렇게 존재는 하나의 빛이 된다.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바, 자기 서사의 보충과 강화와 통합⁶⁰⁾을 통한 치유적 자기실현 과정이다. 그러한 미적·존재적 체험은 살아있음의 구체적이고도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

작품 속의 서사와 작품 밖의 서사 사이에는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작품 속의 양소유는 양소유(겸 성진)일 뿐이고 숙향은 숙향(겸 소아)일 뿐이지만, 작품 밖의 독자들은 양소유이기도 하고 숙향이기도 하다. 팔선녀이기도 하고 이선이기도 하며 운영이나 방관주이기도 하다. 작품 속의 모든 서사들이 미적 공명과 접속을 통해 그들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독자들은 그 서사들을 미적 거리를 통해 객관화하는 가운데 자기화를 행한다. 작품 속의 양소유는 연화도량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성진임을 모르지만, 독자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다. 독자들에게서 양소유의 서사와 성진의 서사는 늘 중층적으로 함께 움직이면서 역동한다. 그렇게 작품 밖의 독자들은, 현실 속의 사람들은 수많은 서사와 미적으로 접속하여 그것을 다양하게 내면화한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서사들을 말이다. 그 서사들은 현실이라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평생의 자기격리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경계를 넘어선 광대한 우주로 안내한다. 새로운 서사와 만나 ‘자기서사의 길 내기⁶¹⁾’를 해가는 과정을 일컬어 정운채는 문학치료라 했거니와, 표현을 달리하면 그것은 곧 ‘살아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60) 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369~370쪽.

61) 위의 논문, 371쪽.

작품 안의 서사와 작품 밖의 서사가 접속하며 자기 초극과 실현이 이루어지는 양상과 관련하여, 그 원형적인 사례를 서사무가 <바리데기>에서 볼 수 있다. <바리데기>에는 아버지를 살릴 약수를 구하기 위해 저승에 간 바리가 남자의 요구로 그와 결혼해서 9년 동안 물김고 빨래하고 나무하면서 자식들을 낳아 키우는 대목이 있다. 그 바리데기의 모습은 이땅 모든 여성-딸/아내/어머니-들의 원형적 표상이다. 고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신화는 이렇게 말한다. 그 고단한 일상의 날들이 곧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생명수였다고. 그렇게 바리는 아버지를 살리고 세상을 구하며, 영원의 존재로서 신(神)이 된다. 지금 작품 밖의 할머니들은, 온몸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바리다! 내가 생명을 빚어내고 세상을 살려낸 그 사람이다!”⁶²⁾ 그렇게 바리의 서사를 온몸으로 체화한 그들, 영원의 자리로 돌아간다. 극락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선녀(仙女)와 보살의 자리로. 아니, ‘돌아간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선녀이고 보살이었던 것이므로.

여덟 남자나 숙향의 서사와 바리의 서사 사이는 거리감이 커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선녀’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존재들이다. 이 세상의 여성들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이다.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소중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규방의 사족 여성들 외에 민간의 일반 독자들도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에 빠져들었고 <숙향전>을 오롯한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선녀이므로. 단지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다. 현실 속의 나는 한 명의 중년 남자일 뿐이지만 서사 속의 나는, 영원 속의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진채봉이고 숙향이며 소아선녀다.⁶³⁾ 내가 바리데

62)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신동훈, 「바리공주 신화에서 낙화의 상징성과 주제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회, 2018, 295~297쪽 참조.

63) 경계를 넘어선 존재적 연결이 남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작품

기다. 나는 그 모두이다.

5. 심리적 고립과 서사적 단절이라는 재앙을 넘어서

지난 가을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화천 회방신당으로 이해경 만신을 찾아 갔을 때의 일이다. 천지간 여러 신명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에 문득 최고신에 대해서 여쭙었다. 신화를 보면 옥황상제가 최고신처럼 보이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 말에 내 앞의 만신(萬神, 滿神)은 힘차게 고개를 저었다. 옥황상제는 하나의 특수한 신일 뿐, 최고신은 ‘천지신명’ 그 자체라 했다. 나의 좁은 소견은 어찌나 분별적이고 위계적이었던 것인지! 어찌 그렇지 않을까. 끝모르게 연결돼 있는 광대한 우주에 미만(彌滿)한 신령한 기운과 섭리, 그것이 있을 따름이다. 그것이 신들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또는 자연 만물에 따라서 다르게 화하여 유동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 다른 변화를 향하여. 영원히.

그 본원적 생명의 세계에 대해 신화는 그것을 ‘서천서역’이라고 부르고(〈바리데기〉), ‘원천강’이라고 부르며(〈원천강본풀이〉), 또는 ‘천상선간’이라고 부른다(〈산천굿〉).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곳 또한 서로 다르지 않다. 그것은 아득한 저 너머에 있는 동시에 우리 곁에 있으며,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곧 원천강이고 서천서역이며 천상선간이다.

나는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걸쳐 사람들이 마음 깊이 새겨온 원형적 존재론이며, 소설을 포함한 고전문학에 서사화된 삶의 진경이었다고 믿는다. 당장 눈앞의 힘든 현실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이라는 허구 속에

서사의 예를 하나 들면, 〈만복사저포기〉 속의 여귀는 양생과의 인연을 통해 ‘무덤의 삶’을 벗어난 뒤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난다.

펼쳐진 그러한 사유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 구체적인 힘이나 실체가 없는 신기루. 하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현실에 아득히 갇힌 삶과 경계를 넘어 영원으로 연결된 삶의 차이. 사람들은 가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비틀거릴 때, 하늘의 무심함과 존재의 미력함에 깊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서사들을 불러내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다.

시선을 돌려서 오늘날의 상황을 본다. 과학과 합리, 자본과 기술의 힘으로 펼쳐진 완전히 새로운 세상. 현실의 폭은 한없이 넓어졌고 우리는 훌쩍 하늘을 날아서 수만 리 밖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조만간 달나라나 화성, 그 너머로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른바 ‘우주’로.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로 우주는 있는 것일까? 우리의 자기서사는 세상을 향해서, 영원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일까?

코로나 사태로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되자 사방에서 비명이 한가득이다. 고립감과 우울감에 신음을 토하며,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공황에 가까운 그러한 상태가 코로나 때문인가 하면,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안에 내재해 있던 단절과 고립, 우울의 서사가 코로나가 가져온 ‘작은 제한’ 속에서 봉인이 풀리듯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본다.

물리적으로 전방위적 연결과 소통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매스미디어와 네트워크 등을 통한 연결과 소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심리적·서사적 측면에서 보면 사정은 판판이다. 온세상에 걸쳐 단절과 고립, 우울과 분노 투성이다. 나라와 민족, 종족 사이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점점 세분화되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단절과 불화, 대립과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간다.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신념의 차이에 따른 단절과 대립도 점점 극단을 향해 험악해져 간다. 가족 내에서도 연결은 자꾸 끊어져 부모와 자식 사이가, 부부와 형제 사이가 모래

알처럼 흩어져 간다. 어디 외적인 단절뿐일까. 나와 나 사이의 단절 또한 갈수록 심각해진다. 스스로 폭발하거나 존재를 놓아버릴 정도로.

다시 문학치료학의 개념을 가져오면, 그것은 서사의 단절과 고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사와 서사 사이에 심연이 가로놓여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딪쳐 과열음을 내는 상황이다. 단절 속에 고립된 채로 뒤틀린 서사가 오롯한 나아감을 멈춘 채 흔들리며 부유하다가 증발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학이 있고 예술이 있지만, 깊은 접촉을 통한 서사적 소통과 확장이, 존재적 자기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튼 하나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채널들. 클릭하나로 대번 멈춰지고 지워지는 영상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 좀 봐달라고 아우성이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고 소음일 따름이다. 그렇게 우리는 무수한 단절 속에서 부유(浮游)하고 있는 중이다. 존재의 거대한 뿌리와 본원적 연결성에 대한 기억을 아득히 상실한 채로. 이런 서사적 단절이야말로 진짜로 무서운 병이고 재앙인 것이 아닐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나, 심리적 고립과 서사적 단절이라는 이 재앙에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하나의 인문적 대응으로서, 고전문학의 속성과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작품 안팎의 서사적 접촉과 연결, 연대와 확장에 대해 특별히 주목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당면과제로서 서사적 단절 극복을 위한 유력한 통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아득한 격리와 고립의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고 펼쳐온 문학적 삶의 역사이기에 그것은 그만큼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고전문학이 제대로 힘을 낼 때다.

자기서사의 깊고 넓은 연결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 영원한 행복의 삶을 이루는 것. 이는 말 그대로 ‘꿈’일 따름이지만,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머무르는 것의 차이는 극과 극이다. 이 논의는 그 나아감을 위한 하나의

서사적 길 내기 과정이었거니와, 손잡고서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구자들은 곧 길을 내는 일꾼들로서, 온 힘을 다해 좋은 길을 찾아내고 열어내는 것은 모두의 책무다. 그 자체 우리의 실존을 확인하는 과정이니 즐겁고 뜻깊은 여정일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김만중 지음,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1~438쪽.
- 김시습, 이지하 옮김, 『금오신화』, 민음사, 2009, 1~173쪽.
- 김현양 외 공역, 『수이전 일문』, 박이정, 1996, 1~244쪽.
- 신광환 지음, 박헌순 옮김, 『기재기이』, 범우, 2008, 1~258쪽.
-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1~338쪽.
- 이상구 옮김, 『숙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1~294쪽.
- 이상보 편저, 『한국가사선집』, 집문당, 1979, 1~440쪽.
- 정병현·이유경 엮음,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1~318쪽.
- 강명관, 「조선 사족체제의 성립과 여성의 통제」, 『여성학연구』 20(3), 부산대 여성연구소, 2006, 99~125쪽.
- 권순희, 「화전가류 가사의 창작 및 소통 맥락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53, 민족어문학회, 2006, 5~30쪽.
- 김동규, 「화전가에 나타난 화전놀이의 유형과 기능」, 『도남학보』 17, 도남학회, 1998, 73~99쪽.
- 김수연,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숙향전>」,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429~459쪽.
- 김영선,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공간 구조를 통해 본 여성통제에 관한 연구 : 영남 양동마을 향단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1~108쪽.
- 김정애, 「구운몽에 나타난 계섬월의 연애방식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통일인문학논총』 53,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3, 115~147쪽.
- 김현양, 「사씨남정기와 옥망의 문제 -소설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91~113쪽.
- 박경주, 「화전가와 여성기행가사의 놀이와 여행 체험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133~165쪽.
-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1~349쪽.
- 박일용, 「인물형상을 통해 본 <구운몽>의 사회적 성격과 소설사적 위상」, 『한국학』 14(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187~207쪽.
- 박일용, 「<주생전>의 공간구조와 환상성」,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139~166쪽.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사씨남정기〉·〈구운몽〉·〈창선감의록〉·〈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학회, 2002, 241~270쪽.

신동훈, 「판소리문학의 결말부에 담긴 현실의식 재론 -〈심청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9, 판소리학회, 2005, 313~349쪽.

신동훈, 「현씨양옹쌍린기에 그려진 귀족사회의 허와 실」,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 2009, 1~617쪽.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117~146쪽.

신동훈,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1~340쪽.

신동훈, 「〈옥루몽〉과 정명(正名)의 철학, 그리고 치유」,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016, 371~418쪽.

신동훈, 「바리공주 신화에서 낙화의 상징성과 주제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273~309쪽.

신재홍, 「구운몽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학회, 1990, 128~167쪽.

신재홍, 「어머니 독자와 김만중의 소설 창작」, 『고전문학과교육』 4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17~148쪽.

이강옥, 「구운몽의 재해석과 희망의 서사교육」,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117~160쪽.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학회, 1991, 64~103쪽.

임해리, 『누가 나를 조선 여인이라 부르는가』, 가람기획, 2007, 1~304쪽.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의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147~179쪽.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00, 1~272쪽.

정병설, 「주제 파악의 방법과 구운몽의 주제」,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315~337쪽.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 『문학치료연구』 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361~381쪽.
- 정지영, 「규방 여성의 외출과 놀이: 규제와 위반, 그 틈새」, 국제문화재단 편, 『한국의 규방문화』, 박이정, 2005, 127~161쪽.
- 정출현,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1~401쪽.
- 조혜란, 「17세기 조선의 규방 현실에 대한 보고」,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353~379쪽.
-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29~59쪽.
- 조혜란, 『삼한습유: 19세기 서얼 지식인의 대안적 글쓰기』, 소명출판, 2011, 1~285쪽.
- 조홍윤, 「합리적 선택이 가져다준 파행」, 신동훈 외, 『신로맨스의 탄생: 고전문학에서 배우는 사랑의 기술』, 역사의아침, 2016, 1~348쪽.
- 지연숙,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 『민족문화사연구』 17, 민족문화사연구소, 2000, 146~172쪽.
- 한국민요대전 홈페이지 <http://www.urisori.co.kr/>

ABSTRACT

The Way of Connection and Communication in Classical Literature in
the Era of Disconnection and Isolation

- Focusing on the Story-in-depth of Classic Novels and their Female Readers

Shin, Dong-hun

This study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classical literature as part of finding a humanistic solution to the disconnection, isolation, depression and anger felt by modern people. While applying the concept “story-in-depth” of literary therapeutics, the “story-in-depth of text” of classical novels and the “story-in-depth of self” of female readers were linked.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existential expan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ough narrative connections and connections inside and outside the works. This approach was considered a powerful pathway to overcome the psychological disconnection as a current problem.

Women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had to endure a more severe disconnection and isolation than modern people. It was a lifelong self-isolation situation. It was a classic novel that conveyed comfort to these women and opened a psychological outlet. Cnovels inclde Guunmong(九雲夢), Sassinamjeonggi(謝氏南征記), Manboksajeopogi(萬福寺樗蒲記), Banghanlim-jeon(方翰林傳), and Sukhyangjeon(淑香傳). Whil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lives of women of the day, they showed the possible world beyond reality and made it internal. The fictional imagination expressed by these works is not to be regarded as a mere escape fantasy. It has a function of surpassing the limits of reality and establishing people as subjects of life while vividly reflecting the real situation like a “tomb”. It was inherent in the text of the work, and it was “constructed” through readers’ subjective reading. The literary process was an existential struggle for self-discovery and self-realiz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narrative connection between classical novels

and female readers is not limited to personal private experiences. It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social change while expressing synchronic and diachronic connectivity. Its aesthetic energy has achieved psychological solidarity that transcends gender and class. it also led to real resistance and practice, breaking social restrictions and repression. The freedom we have today result from the efforts of “finding narrative way” carried out in all directions in the past. To achieve the fundamental connection and communication beyond the modern isolation and disconnection, we need to reflect on the aesthetic and existential struggle that has progressed through classical literature and make it a new meaning.

Key Words classical novel, female reader, story-in-depth of text, story-in-depth of self, Guunmong(九雲夢), Sassinamjeonggi(謝氏南征記), Sukhyangjeon(淑香傳), overcoming Corona

논문투고일 : 2021.04.15
심사완료일 : 2021.05.02
게재확정일 : 2021.05.10